

DAEJEON
DEVELOPMENT
INSTITUTE

DJDI

대전여성의 사회참여:
지역공동체운동 사례연구

주혜진

—

기본과제보고서 2011-12

대전여성의 사회참여: 지역공동체운동 사례 연구

주 혜 진

연구책임

- 주혜진 /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요약 및 정책건의

■ 연구의 목적과 방법

- 생활 속 각 분야로 다양하고 폭넓게 전개되고 있는 지역 공동체 운동의 특성을 파악하며,
- 최근 여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운동이 지역사회의 긍정적 성장에 기여하고 지역 사회 공동체와 함께 발전하는 사례 분석을 통하여,
- 여성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운동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연구의 내용과 구성

- 90년대 이후 성숙해 온 대전지역의 여성주의운동의 발전과정과 그 성과, 그리고 지역 사회에 주는 의미를 살펴보고,
- 지역운동 내에서 제기하는 많은 이슈들 중 독자적이고 독특한 ‘여성의 이슈’를 가지고 성장해온 대전지역의 공동체운동의 발굴과 여성활동가의 활동 사례를 살펴보고, 그 사회적 의미를 짚어보고자 하며,
- 최근 다양화된 ‘여성의 이슈’와 여성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운동의 경향과 성과를 파악하여, 지역 발전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과,
- 여성 활동가들이 중심이 된 지역 공동체 운동과 지역사회 발전과의 연계에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지원과 협력을 실행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탐색한다.

■ 연구의 방법

- 이 연구는 문헌조사와 지역에서 공동체운동을 하고 있는 여성활동가 15명에 대한 심층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다.

□ 심층 면접 조사의 설계

<p>조사 대상</p>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중구 중촌동을 중심으로 한 마을공동체운동 여성 참여자 <input type="checkbox"/> 지역공동체운동 여성 활동가 <input type="checkbox"/> 지역여성운동 관련 기관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지역여성운동 관련 사회적 기업 종사자
<p>조사 방법</p>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대전지역 내 활동 중인 여성 운동 단체 및 기관 종사자 추천 <input type="checkbox"/> 조사대상에 대한 면접 의뢰 <input type="checkbox"/> 개별 면접 및 집단 면접 (Focused Group Interview)
<p>조사대상의 특성</p>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면접 인원: 총 15명 <input type="checkbox"/> 활동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5년: 9명, 6~10년: 4명, 11년~15년: 1명, 16년 이상: 1명 <input type="checkbox"/> 활동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여성운동 활동가 4명 어린이도서관 활동가 5명 지역공동체운동 활동가 3명 생태·생명운동 활동가 3명
<p>조사 내용</p>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여성중심 지역공동체운동 참여의 계기와 과정 <input type="checkbox"/> 여성중심 지역공동체운동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활동가 및 조직 운영자의 경험 - 지역공동체운동 참여자의 경험 - 관련 기관 및 관련자의 경험 - 여성지역공동체운동 전개에 대한 참여자의 전반적 평가 및 향후 전망



- 여성중심 지역공동체운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수요
 - 여성지역운동 조직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방안
 - 여성중심 지역공동체운동에 대한 정책 지원 방안

조사 일정



- 조사대상자 파악 및 선별, 사전 조사: 6월
- 조사 도구 개발 : 6월
- 면접 조사 실시: 7월~8월
- 조사 결과 분석: 9월~10월

<면접 조사 개요>

- 연구를 통하여 밝히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전지역 여성활동가들이 중심이 된 지역공동체운동의 사례를 발굴하고, 그 과정과 성과, 그리고 특성 분석
- 지역공동체운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여성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이 경험을 분석하고, 참여 동기, 확산 경향,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을 분석
- 대전지역 여성참여 지역공동체운동이 지닌 사회적 의미, 즉 지역사회에의 공헌 사례, 지역발전과의 연계 가능성 및 전망 파악
- 대전지역의 여성이 중심이 된 지역공동체운동이 전체 지역공동체사회의 발전과 연계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방안 모색
- 여성 활동가 중심의 지역공동체운동 단체들 간 네트워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그리고 통합적인 연계 방안 모색

■ 국내 여성중심 지역공동체운동 사례

□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여성들이 리더가 되어 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에 주목하고, 문제를 발굴·해결하고자 노력하며,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을 모색하는 많은 공동체 및 모임들에는 기존의 여성단체들 및 기관과 더불어, 일다(<http://www.ildaro.com>), 달나라 딸세포(<http://dalara.jinbo.net>), 언니네(<http://www.uninet.net>), 또 하나의 문화(www.tomoon.com), 부산대학교의 월장(<http://home.pusan.ac.kr/~wallzang>), 쥬이쌍스(<http://www.jouissance.pe.kr>), 살류쥬(<http://www.salluju.or.kr>), 그리고 줌마네(<http://www.zoomanet.co.kr>) 등이 있다.

□ 주부를 중심으로 한 생협 및 한살림운동은 먹거리와 생활 속 환경문제에 민감한 여성의 공적, 사적 공간에서의 위치와 여성으로서의 성역할과 강한 관련을 가질 수 밖에 없었으며, 생활정치라는 개념이 대중화되고 그 중요성이 인식되는 데 기여한 바 크다.

□ 공동육아를 위하여 시작된 성미산마을운동은 지역공동체운동으로까지 넓어진 운동의 영역과 네트워크의 확장을 보여주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화된 운동 내용과 참여하는 조직과 모임의 수, 그리고 범위의 확대 및 연계의 강화의 사례가 되었다.

□ 풀뿌리시민운동의 사회적경제활동은 개인에게는 가까운 삶의 터전에서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하는 길이고, 지역사회적 측면에서는 지역 내 시민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성장의 동력을 의미한다.

■ 대전지역의 특성 및 여성중심 지역공동체 운동의 현황

□ 대전여민회는 ‘생활 속의 여성운동,’ ‘대안 있는 여성운동,’ ‘함께 하는 여성운동’이라는 표어 아래, 고용평등 및 고용안정과 같은 노동과 경제활동에서의 여성 처우 개선에 대한 이슈, 정치와 성평등 이슈, 그리고 200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서는 어린이도서관이나 여성이 중심이 된 사회적 기업 같은 다양한 생활의 영역으로 그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 마을어린이도서관은 아이를 키우면서 여성들이 흔히 고민하는 문제들을 공감하고 함께 해결해보려는 시도에서 출발한 자발적인 공동체운동집단이며, 그 활동영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마을축제를 통하여 지역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소속감을 높이고 있다.

□ 한살림운동이 지닌 생태주의와 생명의 가치, 지역 먹거리 소비를 통한 농촌과 도시의 공생방안 모색,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의 증대 등은, 단순한 소비의 모임이 아닌, 지역 사회와 공동체의 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모임으로 성장할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 풀뿌리사람들은 마을어린이도서관 만들기 사업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시민운동에 주목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러한 운동을 다른 영역 특히 경제영역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중간자로서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 대전지역 여성중심 지역공동체운동의 참여 경험 단계별 분석

□ 지역공동체운동의 참여 동기는 단순한 보람뿐 아니라, 보다 깊이 있는 지식의 습득과 그로인한 전문성 확보에 대한 욕구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이 개인의 발전과 성취, 이를 통한 심리적인 긍정적 자아존중감 획득과 연관이 깊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어, 자기 돌봄과 발전,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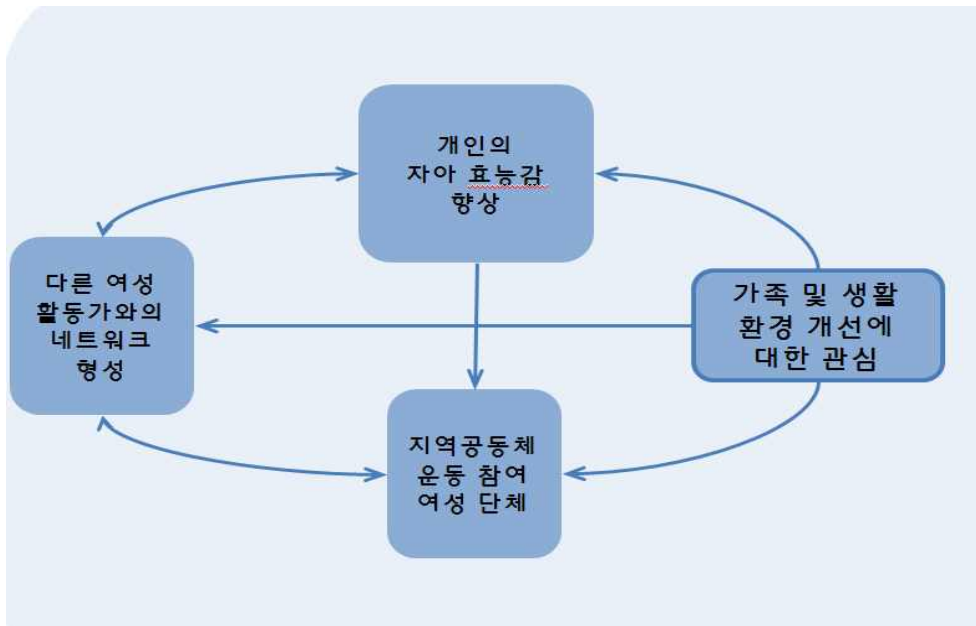
□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운동에 참여하는 여성활동가들은 이러한 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요청에 의한 것, 즉 일상생활과 삶에 밀접하게 있어서 느껴진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지적하였다.

□ 지역공동체운동의 활동의 심화는 ‘인식의 공감과 공유 경험,’ ‘관계 맺기의 확장,’ ‘공동체와 여성의 협력 및 공동 발전 방안의 모색’ 단계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역 공동체 운동 참여 여성 활동가의 활동 내용의 단계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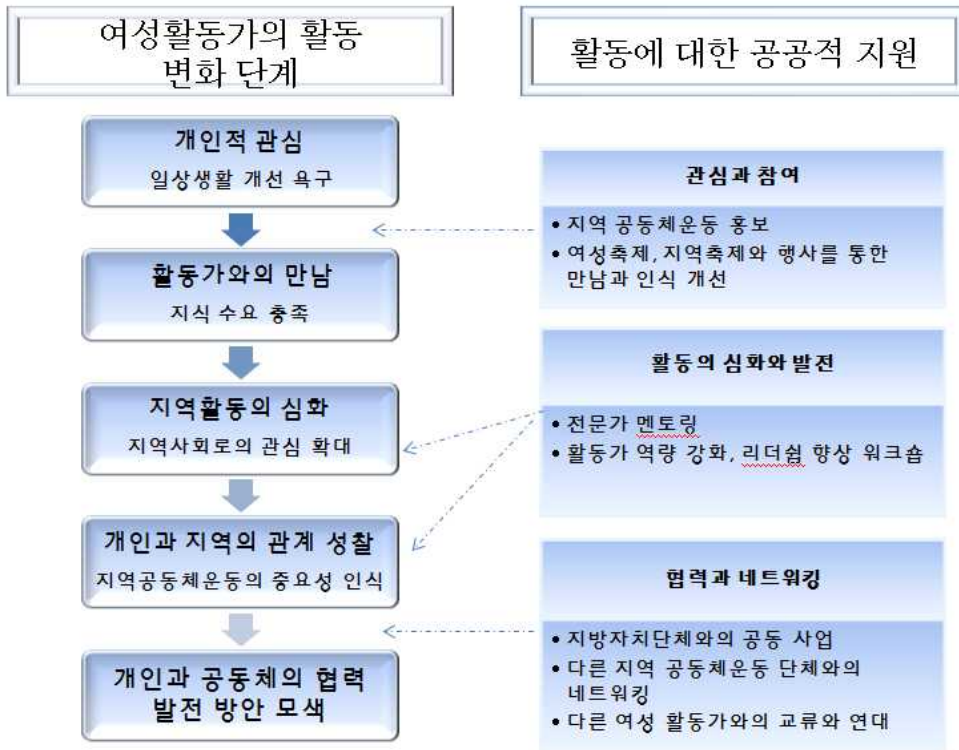
■ 지역공동체운동 참여의 이유와 혜택



■ 대전지역 여성중심 지역공동체운동 발전 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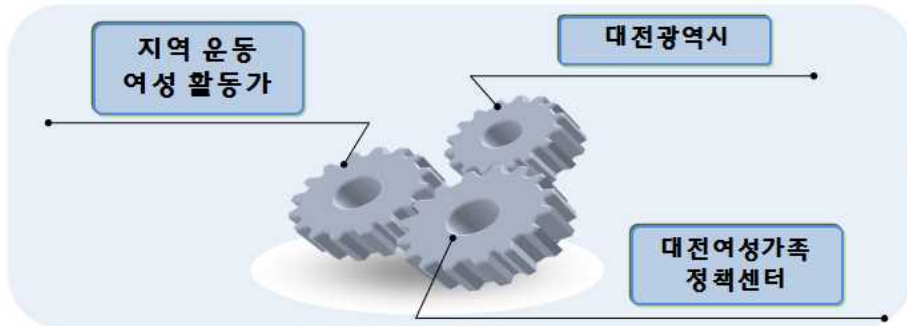
- 여성활동가의 활동 과정에 따른 경험에 기초하여 이들을 지원하여야 한다.

[지역공동체운동 여성활동가의 단계별 활동 변화와 지원 방안]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전문연구자집단은 여성활동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지역 공동체 운동 여성참여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모형]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전문가 그룹, 그리고 여성활동가들은 협력 네트워크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지역 공동체의 이익과 참여의 중요성 인식
- 지역 내 공동체운동이 지역 공동체의 발전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연대성 강조, 목적의식
- 친목도모나 봉사활동의 단계를 넘어서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난 활동가의 전문성 획득
- 지역 공동체 운동의 대중적 기반 확보, 참여자 계층과 연령의 다양성 확보
- 지역 공동체 운동 단체, 모임, 개인 간 연대 활동의 강화
- 지역 공동체 운동의 조직력 강화를 위한 구, 동, 아파트 단지와 같은 하부 지역 단위별 여성 활동가 발굴과 조직화 전략 확립
- 지역 공동체 운동 여성 활동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배달강좌제 등을 활용한 활동 목적에 따른 지원의 특화
- 지역 내 공동체 운동 여성 활동가의 지방자치 참여 지원
 - 지방자치단체 산하 위원회 참여
- 협력사업의 활성화
- 여성 활동가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목 차 -

▣ 요약 및 정책건의	1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추진 과정	7
제3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0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관련 사례 분석	15
제1절 지역공동체와 지역공동체운동	15
제2절 지역공동체운동에 대한 여성주의적 논의	17
제3절 국내 여성중심 지역공동체운동 사례 분석	20
1. 사이버 여성주의운동	20
2. 주부생협·한살림운동	24
3. 성미산마을운동	26
4. 풀뿌리시민운동	30
제3장 대전지역의 특성 및 여성중심 지역공동체운동의 현황	37
제1절 대전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7
1. 인구구성	37
2. 대전여성의 출산과 육아, 가족	40
3. 대전여성의 교육 및 경제활동	42
4. 대전여성의 복지와 여가	46

제2절 대전지역 여성참여 지역공동체운동 주요 사례	50
1. 대전광역시의 여성단체 지원	50
2. 대전여민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운동	51
3. 마을어린이도서관	53
4. 생협·한살림운동	57
5. 풀뿌리사람들	60
제4장 대전지역 여성중심 지역공동체운동의 참여 경험 단계별 분석	67
제1절 지역공동체운동 여성활동가의 참여 동기 및 특성	67
1. 자기 발전과 돌봄, 치유의 기회	67
2. 삶에 근거한 변화에의 욕구	69
제2절 지역공동체운동 활동의 심화와 발전	72
1. 인식의 공감과 공유 경험	72
2. 관계 맺기의 확장	75
3. 개인에서 지역으로의 공동체성 형성	78
제3절 여성중심 지역공동체운동 활성화의 과제	81
1. 여성중심 지역공동체운동 전개의 어려움	81
2. 여성중심 지역공동체운동 활성화의 필요조건	86
제5장 대전지역 여성중심 지역공동체운동 활성화 및 여성활동가 지원 방안 모색	91
참고문헌	98
부 록	100

- 표 목 차 -

<표 1> 지역성과 목적성에 따른 공동체의 분류	15
<표 2> 여성단체의 사이버 공간 활용 내용	22
<표 3> 2009년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한부모 가구	42
<표 4> 2010년 대전광역시 여성단체 현황	50
<표 5> 대전광역시 여성단체 지원 내역	51
<표 6> 대전여민회 주요 활동 내용	52
<표 7>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 개황	61
<표 8> 풀뿌리사람들 목적별 사업 목록	63

- 그림 목 차 -

[그림 1] 면접 조사 설계	8
[그림 2] 성미산마을운동 각 시기별 네트워크 형성	29
[그림 3] 풀뿌리 사회경제 영역	32
[그림 4] 연령계층별 인구구성(2010년)	38
[그림 5] 총인구 추이	39
[그림 6] 여성 가구주 가구분포	41
[그림 7] 평균 교육년수	43
[그림 8] 광역시별 여성인구 중 4년제 대학 졸업이상의 비율(2005년)	44
[그림 9] 광역시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률 추이(2010년)	45
[그림 10] 여성의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률(2009년)	47
[그림 11] 여성의 주된 여가 활동(2009년)	48
[그림 12] 연령별 자원봉사자 현황(2007년)	49
[그림 13] 중촌마을어린이도서관 짜장의 협력 체계도	54
[그림 14] 2010중촌마을문화축제 행사 배치도	56
[그림 15] 한살림대전생협의 조직 구성도	59
[그림 16] 지역 공동체 운동 참여 여성 활동가의 활동 내용의 단계별 변화	80
[그림 17] 지역공동체운동 여성활동가의 단계별 활동 변화와 지원 방안	92
[그림 18] 지역 공동체 운동 여성참여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모형	97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추진 과정

제3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지방자치제도가 진정한 의미에서 지역 주민에 의한 자율적인 정책 형성과 결정 그리고 집행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 욕구를 알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일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모임과 조직을 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결정과 수행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학계뿐 아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뜨겁다.

최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주민 스스로의 정책개입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은 지역 내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주목하고 있다. 지역의 문제 및 욕구를 집합적이고 협동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보편화된 요즘은 지역 사회 구성원 간 네트워크와 상호 인지와 상호부조에 바탕을 둔 신뢰의 형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자본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Putnam, 2009). 지역공동체의 범위와 그 경계가 확장되고 모호해지는 것과 동시에, ‘동네’를 중심으로 한 이웃 간 상호부조와 신뢰 쌓기가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커지고 있는 현실의 복잡성은, 정책연구자들이 앞으로 광범위한 차원에서의 지역공동체 정책 결정과 수행에 대한 연구와 소규모 지역 공동체 단위의 정책 결정 참여와 수행 과정 모니터링에 대한 연구를 동시에 병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규모 지역 공동체 중심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성장이 어떻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책패러다임 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 그 과정과 의미를 분석하여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정책개입방안 개발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활발한 상호작용과 협력을 기반으로 신뢰를 쌓아 온 사회운동은 여성주의운동이 대표적이었다.

여성주의운동¹⁾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에 저항하는 실천들을 지역 혹은 중앙에서 꾸준히 실행해왔다. 대전지역에서도 1980년 대 후반 구성된 여성민우회를 중심으로, 주변화된 여성의 삶을 성찰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 보호,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한 실천을 계속해 왔다. 여성주의운동은 지금까지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적, 제도적인 변화를 이끌어 왔고, 우리 사회에서 생소했던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한 문제의식의 확산, 성평등한 관점의 보급, 그리고 비가시화되어 왔던 성폭력 및 성차별적 관행들을 공론화하는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여성주의운동이 지금까지 이루어 온 많은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여성주의운동 내외에서는 변화하는 시대와 다양화된 개인들, 여성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여성운동에 대한 모색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여성주의운동이 정치중심적이라는 비판(이현희 2004; 김종미 2004)과 함께, 여성주의운동진영은 여성의 일상생활,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지를 받기 시작했다.

여성주의운동이 여성 억압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에 의문과 비판을 제기하고, 여성의 권리 보장과 지위 향상, 성차별적 제도의 개선을 위해 우선 정치권으로의 여성 진출에 많은 노력을 투자하면서, 오히려 성인지적 관점, 성평등적 인식이 개인의 삶이나 지역으로까지 확산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여성주의운동의 기본 이념 및 당위성에 공감하면서도, 그 실행 방식에 공감하지 못하는 많은 여성들을 양산했으며, 여성주의운동과 자신의 삶 사이에 느껴지는 큰 괴리감, 낮은 체감도, 혹은 거부감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여성주의운동이 최근 가져온 이 같은 반성의 내용은 운동이 지닌 방향과 비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여성주의운동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중앙’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여성의 사회적·정치적 역량강화(empowerment)를 위해 노력해왔던 시

1) 여기에서 말하는 ‘여성주의운동’은 여성주의적 지향을 표방하는 운동을 의미한다. 여성주의적 지향을 표방하는 운동 혹은 활동은 가부장적인 사회 관습과 제도, 그리고 가치관으로 인한 성차별과 불평등 현상과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데 가장 주력하는 정치·사회적 집단 운동 혹은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간 동안 운동에 참여한 개인 자원 활동가들, 여성주의 운동가들은 거시적 차원에서는 여성주의 운동의 지속 가능성을, 개인적 차원에서는 여성주의 운동에 뛰어든 뒤 잃은 것들, 혹은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 왔다. 여성주의 운동은 호주제의 폐지를 비롯한 가시적인 여성 권익의 향상을 비롯하여, 여성 정치인 및 리더의 양성, 여성고용할당제, 노동권 보장과 임금 향상, 출산휴가 및 휴직의 보장, 다양한 취약계층여성의 삶과 인권의 보호 등 여성의 삶 전방위에 걸쳐 노력을 기울여 왔고, 성과를 보여 왔다. 하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여성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활동가들은 그들이 오랫동안의 노력으로 이루어 온 삶의 질 향상의 혜택을 오히려 충분히 누리지 못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성주의운동을 하면서, 여러 대의를 위한 말 그대로의 ‘헌신’을 자의반 타의반 강요받아 왔다고 여성활동가들은 종종 이야기 한다. 학업, 경제적 자립, 혼인, 육아, 은퇴 후의 삶 설계 등, 많은 다른 보통 여성들의 고민을 그들도 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개인적 삶을 설계하는 과정과 여성주의운동의 참여가 함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루지지는 못 했다. 성평등한 사회 구축이라는 대의와 여성주의 활동가들의 삶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의 한 해결책으로서, 또한 더 많은 여성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여성주의운동의 비전으로서 “지속 가능한 여성운동”은 고민되었다(언니네, 2005).

이러한 여성주의운동 내부의 고민과 활동가들의 심리적 피로감은 새로운 방향을 지닌 사회운동으로의 모색을 이끌어내었으며, 지속가능하면서도 여성활동가들의 심리적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사회운동에 대한 욕구가 증가했다. 이 연구는 위 두 가지 고민의 결과가 생활 영역에서의 여성주의운동, 혹은 여성주의운동의 생활영역으로의 외연 확장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주장에서 출발한다. 지역에서 여성주의 운동의 핵심과제에서는 벗어났지만, 각 개인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전개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여성주의운동에 대한 가능성이 공동체와 삶, 그리고 여성을 연결하고자 하는 지역 여성 자원 활동가들에게 있다. 사회적 파트너십의 강화, 여성의 참여-지역사회 발전을 연계하는 네트워크의 구축 등 사회적 연대의 강화와 신뢰 회복이라는 거시적 측면의 조망 또한 필요해 졌다. 여성의 생애주기와 생활환경 전

반에 걸쳐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지역의 여성활동가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왜 이들은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개인 활동가의 경험 분석을 통한 현황 파악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여성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소규모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그 효과에 주목하고, 대전 지역 내에서 여성을 중심으로 특정 형태를 가지고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지방자치체의 기본적인 취지가 여성중심의 소규모 지역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발전하고 있다는 현상과 증거들, 그리고 직접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체계적인 정책개입방안을 개발해 보고자 한다. 또한, 참여하는 여성 개인들 수준에서 지역 공동체 운동 활동을 통하여 어떻게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고 그 자본이 지역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 공동체 운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왜 대전의 여성 활동가들은 자발적으로 이러한 공동체 운동을 통하여 호혜성과 신뢰를 생산하고, 자발적으로 사회적 자본을 생성하고 이를 지속시키려 노력하는가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왜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들의 사회적 자본 형성을 지원해야 하는가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위와 같은 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이 연구는 다음의 내용 분석에 주력하고자 한다:

- 90년대 이후 성숙해 온 대전지역의 여성주의운동의 발전과정과 그 성과, 그리고 지역 사회에 주는 의미를 살펴보고;
- 지역 여성운동 진영에서 제기해 온 이슈들 중 독자적이고 독특한 '지역 공동체 관련 이슈'를 가지고 성장해온 운동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며;
- 여성들이 지역공동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계기와 참여 동기를 개인 경험 구술 내용을 분석하여 파악하고,
- 여성중심의 지역공동체운동이 어떻게 대전지역 발전과 연계될 수 있는지, 지역

공동체운동의 효과를 탐색하고;

- 지역공동체운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경험 분석을 통하여, 보다 더 지역 여성 참여 공동체 운동이 활성화되기 위한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과 추진 과정

이 연구는 크게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 대전지역 여성주의운동 및 여성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지역공동체운동의 사례 발굴, 그 과정과 성과, 그리고 특성 분석
- 지역공동체운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여성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 조사 실시
- 여성 참여자 개인들의 경험 분석을 통한 참여 동기, 확산 경향,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 분석
- 대전지역 여성참여 지역공동체운동이 지닌 사회적 의미, 즉 지역사회에의 공헌 사례, 지역발전과의 연계 가능성 및 전망 파악
- 대전지역의 여성이 중심이 된 지역공동체운동이 전체 지역공동체사회의 발전과 연계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방안 모색
- 여성 활동가 중심의 지역공동체운동 단체들 간 네트워킹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그리고 통합적인 연계 방안 모색

1. 문헌 자료 분석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여 활동하고 있는 여성운동을 다루고 있는 기존의 연구들과 운동 단체들에서 발간한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 운동 현황과 역사에 대한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지역 공동체와의 연대, 지역 공동체로의 환원을 목적으로 한 여성 운동에 대한 문헌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따라서, 지역 운동 전반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혹

은,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여성 운동 전반에 대한 검토가 포함된 연구 보고서, 학술대회 및 토론회 등에서 발표된 발제문, 지역 내 여성 운동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기록한 사업 결과 보고서 및 안내 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2. 조사 연구

1) 지역공동체운동 참여자 면접 조사

본 연구는 대전지역에서 공동체주의 운동 혹은 지역공동체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활동가들을 면접조사하였다. 주요 면접자들은 지역에서 여성주의운동을 전개해 온 전문가로부터 추천을 받았으며, 추천받은 면접 대상자 중 15명이 실제 면접에 참여하였다. 2인 혹은 3인이 함께 초점집단면접의 형태로 면접조사에 참여하였으며, 면접조사의 설계와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면접 조사 설계

조사 대상	■■■	<input type="checkbox"/> 중구 중촌동을 중심으로 한 마을공동체운동 여성 참여자 <input type="checkbox"/> 지역공동체운동 여성 활동가 <input type="checkbox"/> 지역여성운동 관련 기관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지역여성운동 관련 사회적 기업 종사자
조사 방법	■■■	<input type="checkbox"/> 대전지역 내 활동 중인 여성 운동 단체 및 기관 종사자 추천 <input type="checkbox"/> 조사대상에 대한 면접 의뢰 <input type="checkbox"/> 개별 면접 및 집단 면접 (Focused Group Interview)
조사대상의 특성	■■■	<input type="checkbox"/> 면접 인원: 총 15명 <input type="checkbox"/> 활동 기간: 1년~5년: 9명, 6~10년: 4명, 11년~15년: 1명, 16년 이상: 1명 <input type="checkbox"/> 활동 영역:

	<p>지역여성운동 활동가 4명 어린이도서관 활동가 5명 지역공동체운동 활동가 3명 생태·생명운동 활동가 3명</p>
<p>조사 내용</p>	<p> <input type="checkbox"/> 여성중심 지역공동체운동 참여의 계기와 과정 <input type="checkbox"/> 여성중심 지역공동체운동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문제점 - 여성 활동가 및 조직 운영자의 경험 - 지역공동체운동 참여자의 경험 - 관련 기관 및 관련자의 경험 - 여성지역공동체운동 전개에 대한 참여자의 전반적 평가 및 향후 전망 <input type="checkbox"/> 여성중심 지역공동체운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수요 - 여성지역운동 조직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방안 - 여성중심 지역공동체운동에 대한 정책 지원 방안 </p>
<p>조사 일정</p>	<p> <input type="checkbox"/> 조사대상자 파악 및 선별, 사전 조사: 6월 <input type="checkbox"/> 조사 도구 개발 : 6월 <input type="checkbox"/> 면접 조사 실시: 7월~8월 <input type="checkbox"/> 조사 결과 분석: 9월~10월 </p>

면접조사 참여자들은 연구자로부터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들었으며,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면접의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어떠한 과정과 이유로 지역 공동체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 하면서 자연스럽게 활동가로서의 보람과, 활동 상 어려움, 만족도,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바람과 정책적 요구 사항 등에 대하여 구술하였다.

제3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90년대 이후 등장한 새로운 사회운동과, 보다 폭넓어진 사회 문제와 삶의 문제들, 관련한 이슈들은 여성주의운동의 실행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최근 여성주의운동 활동가들도 여성운동으로 단일화할 수 있는 문제들이 점점 협소해지고 있으며, 여성의 경험들이 일반화되고 보편화 될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최근이 경향이 여성활동가들이 보다 더 많이, 그리고 활발하게 지역공동체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지역공동체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삶과 관련한 혹은 생활과 관련한 집합적 활동들이 '여성적인 이슈'나 '여성스러운 활동,' 즉 전형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고착화해왔던 주제들임을 간과할 수 없다.

육아와 먹거리, 생태의 문제들은 어머니의 역할, 가사노동, 그리고 이분법적 의미에서 여성성을 대표하는 것들이며, 오랫동안 여성주의운동이 정치적으로 경계해왔던 성역할담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지역공동체운동에 적극적인 여성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이들이 왜 이러한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그들이 활동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논하는 것은 자칫, 기존 주류 여성주의운동이 비판해 왔던 이분법적 성역할의 고착화를 재포장하는 일을 자처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 여성주의운동과 연구는 횡적으로 퍼져있는 여성 개인들의 삶과 경험을 통일성이나 단일성을 가정하여 단순화하는 오류를 지양해야 한다. 각자의 특수한 위치에서 여성 개인과 사회구조와의 역동적 관계를 고민하며, 그 고민을 통해 생산되는 이야기와 지식들에 귀 기울이고 이를 이론화할 필요가 있다 (Freedman, 2008).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될 새로운 여성주의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연구의 한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

방법론적으로 이 연구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운동의 여성 참여자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많은 수의 조사 대상자를 확보하여 실시하는 설문조사는 지역공동체운동에 참여하는 활동가들의 의견을 폭넓

게 수렴할 수 있는 대신, 개인 활동가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어떠한 한계와 문제점을 경험하였는지, 스스로 느끼는 활동 참여의 보람과 만족감은 무엇인지 등을 상세히 밝힐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적은 수의 면접 참여자와 그들의 구술을 연구 자료로 삼았으므로, 경험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부족한 것은 이 연구 방법론이 지닌 한계일 수 있다. 그러나, 면접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여성 활동가들이 보다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대화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활동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이 과정에서 자신이 해 온 지역운동 활동의 시간을 되짚어 보고 그 의의를 탐색한다는 점에서 연구와는 별도로 얻어지는 소통의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소통의 효과가 앞으로 대전지역의 여성활동가와 리더집단을 양성해 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가 되길 바라는 것이 이 연구를 통한 부수적인 기대이다.

또한 보다 많은 지역 여성 활동가들 사례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그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과 한계들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 사회공동체의 발전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추후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 2 장

이론적 고찰 및 관련 사례 분석

제1절 지역공동체와 지역공동체운동

제2절 지역공동체운동에 대한 여성주의적 논의

제3절 국내 여성중심 지역공동체운동 사례 분석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관련 사례 분석

제1절 지역공동체와 지역공동체운동

사회적 활동이 전개되는 구체적인 장소이며, 구성원 간 상호작용이 오가는 상황과 조건을 의미하기도 하고, 구성원 간 일체감과 유대감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는 공동체는, 그 무엇보다도 지리적 공간의 공유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차재영, 2008).

지역공동체란 구성원 간 지리적·공간적 근접성(nearness)으로 인한 상호접촉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높고, 공동의 이해관계를 발견하기 쉬울뿐 아니라, 많은 경우 경제적, 사회·문화적 동질적 요소를 강하게 지닌 집단, 혹은 일정한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집단 혹은 지리적 영역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임석희 외 2003). 이재열(2006)은 공동체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지역성'과 '목적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공동체 구성의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에 기반한 구성원간의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체를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표 1> 지역성과 목적성에 따른 공동체의 분류

		(B) 이념-목적성	
		낮음	높음
(A) 지역성 - 자연발생성 - 전통성과 지속성 - 귀속성 - 인격적관계	높음	마을공동체	코문 야마기시공동체 신앙촌
	낮음	협동조합 직능단체	이념적 결사체 시민단체

*출처: 이재열(2006)

지역성에 기반한 공동체일수록 인간관계는 상호의존적이고, 공동체의 규범에서 벗어날 때 강제적인 동조의 압력도 발휘되므로, 위 표의 마을 공동체의 경우엔 특정 목적을 공유하는 시민단체나 이익집단은 아니지만, 심리적 유대감은 강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이 연구에서는 공동체를 “지리적으로 특정한 지역에 살면서 상호간에 그리고 거주 지역에 대한 사회적 및 심리적 유대를 지니는 사람들”로 정의하며, 지리적 공간에 기초한 공동체가 가지는 지역성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성에 기반한 귀속성과 심리적 유대감을 강조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local community)”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차재영, 2008: 596).

지역공동체운동은 지역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사회적 대의와 공공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결성된 집합 조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구성원들의 조직화는 평범한 주민들의 동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해 왔다. 일명 ‘풀뿌리 조직’으로 불리우는 동네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주민조직들은 “지리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고, 상당한 정도로 자율적이며,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것과 동시에 하나의 집단으로 어느 정도는 자발적인 이타성(voluntary altruism)을 보여주는 공식적인 비영리 집단들”을 의미한다(곽현근·유현숙, 2005: 350).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도된 공동행위를 수행하는 지역 사회의 자발적 주민조직들은 정책과 시민의 욕구를 연결해주는 소통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정책적 욕구를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보다 체계화된 조직은 지방정부의 의뢰를 받아 공공서비스를 대신 수행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주민참여 조직들은 기존의 정당정치나 지방자치단체라는 공공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주민과의 직접 소통과 정책 욕구 발견, 생활에 근거한 개선안 제안 등 정책의 결정과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구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현 지방자치제도와 민주적인 권력의 분권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곽현근·유현숙, 2005; 임석희 외, 2003)

이러한 이론적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지역공동체운동을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집한 형태의 조직을 바탕으로 다양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도된 공동의 행위들이라고 정의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의 노력과 행위들은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대전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생활과 삶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공동의 활동에 주목하며, 여러 활동들 가운데서도 여성들이 중심이 된 활동과 조직에 주목하고자 한다.

제2절 지역공동체운동에 대한 여성주의적 논의

1980년대 초반부터 주류 여성주의운동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여성계 내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른바 “새로운” 여성주의운동이 여성주의운동의 한 축으로 성장했다(박인혜, 2009: 142). 성차별적인 관행을 그대로 반영했던 법과 제도 개선, 제도권 정치에의 참여, 사회적 지위의 강화를 통한 세력화를 강조했던 기존 여성주의운동의 관심사를 협의의 의미를 지닌 ‘여성’에서 보다 폭넓은 삶의 반경을 지닌 ‘인간’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박인혜, 2009; 윤나래, 2010).

여성도 생활문제의 담지자이며, 생활세계를 이끌어가는 주체라는 인식이 보다 보편적인 지지를 획득하면서, “생활정치”라는 용어의 등장과 함께 그동안 사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여성주의운동의 주요 영역이라고 취급되지 못했던 삶과 관련한 문제들이 운동의 영역으로 강하게 흡수되었다.

여성들만의 문제, 혹은 여성주의적인 문제라 여겨지던 특정 이슈들 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사회문제들과 접목하려는 여성주의운동 내 시도들이 보이기 시작하였다(이현희, 2004; 김종미, 2004). 1980년대, 다양한 계층과 계급, 그리고 지역의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과 삶을 고민하는 교육이 민간영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여성들은 여성에 가해지는 직접적인 폭력과 불평등한 제도 외에도, 문화, 농업, 환경, 소비자의 권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켜

나갔다(박인혜, 2009).

이러한 여성주의운동의 외연 확대는 여성 문제에 대한 집중이라는 여성주의운동의 독자성 확보와 동시에 보다 많은 여성들의 공감을 얻기 위한 대중성 확보에 대한 요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성들이 속한 일상적 영역에서 출발해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고,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이른바 ‘지속 가능한’ 여성주의운동의 전개 가능성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였다.

권리 중심적인 여성주의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서구사회와는 달리, 가족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공동체에 많은 무게를 두는 한국사회에서는 기존의 여성주의운동이 실천해 온 여성의 독자적 권리주장, 지위향상 관련한 활동들은 여성들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안겼던 것도 사실이다(이현희, 2004).

여성주의운동의 대중화 요구와 함께 진행된 생활영역으로의 여성주의운동은 최근, 지역성(locality)이 중요한 화두로 첨가되었다(윤나래, 2010). 지역이라는 범주는 여성주의운동의 대중화와 저변확대, 그리고 여성주의운동의 구체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영역으로 부상하였다(부산여성사회교육원, 2007; 이혜숙, 2011). 연구자들은 지역에 기반한 생활정치가 21세기 여성주의운동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유력한 대안으로 꼽기도 하였다.

지방자치시대의 지역은 중앙과는 별도의, 자율적인 삶이 가능한 단위이며, 구성원 간 대면 접촉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일상의 현장이다. 지역이라는 삶의 단위는 정치, 경제, 문화 나아가 생태적 조건을 통합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각 영역의 사안에 대한 자율적 결정을 실행하고 새로운 구성체를 모색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지역의 모습에 공감하는 시민들은 지역에 대한 주체적인 의식과 문제해결 및 대안의 모색을 함께하는 공동체성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공동체성에 대한 요구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풀뿌리 운동으로 발전되었으며, 풀뿌리 시민운동을 통하여 시민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시민사회

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기존의 공적 정치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방식이었고, 따라서 의제 결정자와 실행자, 그리고 대상이 분리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면, 풀뿌리 시민운동은 스스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직접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며, 이를 실행하도록 점검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이 새로운 여성주의운동을 모색하는 여성주의운동 내 집단과 결합하였으며, 자율적인 참여와 연대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하고 또한 주체적인 여성의 지역공동체운동에의 참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성에의 강조는 중앙 지향의 획일주의,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기존 행정 및 정치의 관행에 대한 대안이기도 하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중앙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닌, 각 지역의 특성과 삶의 형태를 존중하는 다중심주의의 실현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았으며, 지역 내에서 여성스스로가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실험하며, 여성의 위치를 재정립하는 매우 능동적인 작업이기도 하였다.

능동적인 시민 주체로서의 참여, 책임지고 함께하는 새로운 시민사회에의 열망은 다양한 지역 내 공동체운동의 활동을 생산하거나 그들과 연계되었다. 생태·환경운동, 생협·한살림 운동, 공동보육운동, 사회적기업의 창업 등이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지역공동체운동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지역으로, 여성의 삶으로, 보다 다양한 여성 계층으로 외연을 넓힌 여성주의운동의 현재는 시대의 변화와 이에 따른 운동 패러다임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면서도, 운동 진영 내부에서 일고 있는 여성 활동가들의 '여성주의운동가로서의 정체성 확립' 그리고, '운동과 개인 삶의 양립'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촉발된 것이기도 하다.

여성주의운동 활동가라는 것이 여성단체나 기관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 국한할 것인가, 아니면, 여성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지속적이지만 간헐적으로 참여하는 자원활동가 및 참여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여성주의운동권 내부에서도 제기되기 시작하였다(언니네, 2005).

직업으로서의 여성주의운동 활동가와 다른 영역과 여성주의영역을 가로지르는 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여성들)을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이는 여성주의운동에 오랫동안 전적으로 헌신해 왔으면서도, 직업으로서의 전문성을 획득하지 못하는 활동가들에게는 유연함을, 또한 여성주의운동에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는 많은 관찰자들에게는 참여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정치와 제도 개선에 헌신해 왔던 여성주의운동 활동가들은 정작 자신의 삶이 그다지 나아졌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기도 하며, 여성이라면 경험할 확률이 매우 높은 생애주기별 활동들-결혼과 육아, 가사, 노후대책 등을 여성주의운동과는 무관하게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고민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삶과 생활에서 나오는 (보통의 여성들이 모두하고 있는) 고민들을 여성주의운동을 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의 한 가지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운동에의 참여가 있다고 본다.

여성주의적 시각을 지닌 보육과 먹거리 마련, 가사노동과, 노후의 삶 모색은 새로운 여성주의운동의 지평을 열었으며, 여성주의운동 활동가들에게도 그리고, 여성주의운동 자체에도 그 지속성과 생명력을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3절 국내 여성중심 지역공동체운동 사례 분석

1. 사이버 여성주의운동

현재 한국 사이버 공간에는 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에 주목하고, 문제를 발굴·해결하고자 노력하며,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을 모색하는 많은 공동체 및 모임들이 있다. 보다 깊이 있는 여성주의에 대한 논쟁과 여성주의운동의 방향성 모색을 목표로 하는 모임이 있는가하면, 기존에 설립되었던 여성단체들이 사이버 영역으로 그 활동범위를 넓힌 경우도 있으며,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현재 가장 관심있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에 집중하는, 여성의 삶과 생활의 문제 해결에 보다 노력을

기울이는 운동 및 모임도 많다.

한국에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지고, 대부분의 성인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활용하게 되면서, 기존의 여성단체 및 기관들은 온라인을 통한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를 활용한 여성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표 2> 여성단체의 사이버 공간 활용 내용2)

여성운동영역 단체명	성차별개선운동 및 교육	법제도개선운동	경제적지위 개선운동	정치적 지위 개선운동	상담실 운영	비고
1. 한국여성단체협의회 http://www.iwomen.or.kr/	성명서, 건의문 통한 운동 (여야 비례대표 할당 관련 1, 군산화재사건관련 1, 제주 우지사 성추행 관련 1, 사내부부해고무효판결 1, 정당법과 국회법개정 관련 1, 성차별적 주택공급관련 1, 여군학교 폐지관련 1, 지방선거 관련 2, 여성총리임명관련2, 신임 국무총리관련 1)	-	-	-	고용평등상담실 사이버 성폭력상담실 호주제 피해상담실	성명서를 통한 여성운동 지원
2. 한국여성단체연합 http://www.women21.or.kr/	성희롱 실태조사 문희와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여성차별, 여성 인권의식향상등, 신문속 여성관련기사 제공	성매매방지법 등	경제·복지 재산공동명의 등	정치세력화	-	효율적인 자료실 이용
3. 대한YWCA연합회 http://www.ywca.or.kr/	-	-	여성개발인력 센터운영 및 안내	세계평화와 여성연대 자료제공	off-line 상담실만 안내	-
4. 전국주부교실중앙회 http://www.nchc.or.kr/	지도자 대회 안내	-	일하는 여성의 집 운영	-	소비자 상담	-
5. 전국여성노동조합 http://kwunion.jinbanet	성희롱 상태 해결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등 직장내 여성인권보호, 직장내 여성차별	모성보호 법률상식 제공	고용안정 비정규직 권리 찾기 운동본부 게시관 운영	-	직장내 문제 상담사례 형식으로 상담	직장내의 여성 인권문제-모성보호, 고용안정, 평등 세상 추구
6.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http://www.hotline.or.kr	자료실 군산화재사건성명서 성폭행사건 등	-	부부 재산공동 명의 운동	자료실-여성총리지명, 지방선거결과 논평등	-	연결되지 않는 메뉴 있음
7.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www.kwfa.net	군산화재참사 성명서, 성추행 사건 관련등 성명서	쌀 증장기 대책 등 농업관련정책 성명서	농업관련 내용에 관한 성명서	민족통일대회 참가	-	여성농민을 위한 사이트
8. 한국여성중앙회 http://www.jw21.org/	여성인권 향상사업 소개, 여성/세계의 여성, 여성과 법 안내	-	여성인력개발 센터운영	-	-	-
9. 한국여성민우회 http://www.womenlink.or.kr/	웃어라 명절 홈페이지 한부모가족 홈페이지 여성관련 뉴스와 성명서 미디어운동본부 성교육 및 책자 발간. 지역미인대회 문제점 토론회	성명서 고양 성매매 방지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	여성노동센터 고용평등추진 본부	성명서 비례대표제 어떻게 생각 하세요등	가족·성상담실 여성노동상담실 한부모 상담실	환경문제에 관심: 여성환경센터와 생협 사이트 운영/ 전자상거래가능
10.				정치관련 설문조사		여성정치 관련 사이트 여성정치연대(한국여성

2) 한정자.2002.여성단체의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 활성화 방안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부분 재인용.

기존의 여성단체 및 여성기관들은 홈페이지를 주로 게시판과 공개자료실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여성과 관련한 주제 연구, 포럼, 세미나 결과 보고 및 자료집을 일반 여성들과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 크고, 이용하는 여성들도 이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한정자, 2002). 기존의 여성단체 및 기관들은 주로 공공정책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등을 화두로 정보를 생산하거나, 이에 대한 활용과 모니터링에 주목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각각의 활동 영역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여성들이 주축이 된 사이버 운동 공동체를 꾸린 첫 시도는 1994년 천리안의 '여성학 동호회'라 할 수 있으며, 이후 1996년 하이텔의 '페미니스트의 천국'으로 이어져왔다고 할 수 있다(언니네트워크, 2011). 최근 사이버 공간 안에서 여성주의를 표방하거나 이에 근거한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사이트 혹은 웹매거진은 일다(<http://www.ildaro.com>), 달나라 딸세포(<http://dalara.jinbo.net>), 언니네(<http://www.uninet.net>), 또 하나의 문화(www.tomoon.com), 부산대학교의 월장(<http://home.pusan.ac.kr/~wallzang>), 쥬이쌍스(<http://www.jouissance.pe.kr>), 살류쥬(<http://www.salluju.or.kr>), 그리고 줌마네(<http://www.zoomanet.co.kr>)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인터넷 상에서 검색이 되지 않거나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주의 웹진, 저널, 혹은 사이트 등은 여전히 생성과 발전, 쇠퇴와 새로운 탄생을 반복하며 꾸준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

여성단체 이외에 여성주의운동 사이트 및 웹진에서 펼쳐지는 영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과, 성차별적 인식과 관행 철폐를 위한 이론적 논의들, 그리고 이론적 논쟁을 탄탄하게 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으로 파악된다. 호주제가 철폐되기 전에는 호주제 철폐를 비롯한 법과 제도 개선 운동이 다음으로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한정자, 2002),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노력,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

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최근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포털 성격의 여성주의운동을 위한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관련된 여성주의운동진영 및 진보적 정치진영과의 연대와 네트워킹이 활발해 지고 있다.

‘일다’의 경우, 기본적인 여성주의적 지식의 공유와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정치·정책 모니터링, 노동, 환경과 생태운동, 소수자의 인권, 미디어 비평과 성희롱 예방 등 다양한 주제를 두루 섭렵하고 있다. ‘달나라 딸세포’역시, 페미니즘에 대한 논쟁과 정보 공유뿐 아니라 여성 실업, 청소년 문제를 비롯하여 건강과 문화까지 넓은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언니네’는 정치와 정책 관련 이슈를 비롯하여, 성과 결혼, 육아에 이르는 여성의 삶과 생활의 이슈에 보다 많이 주목하고 있다.

‘또 하나의 문화’는 성평등한 삶의 양식을 담은 대안적 문화와 삶의 방식을 지향하고 이를 실천해가는 동인들의 모임으로 출발하여, 현재 출판과 서울을 여행하는 여성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운영,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전개 등으로 발전하였다.

‘줍마네’와 ‘살류쥬’가 기존의 문학계 성향과는 다른 지점에서 여성주의 문학을 실행하고 있는 일명 ‘아마추어’ 여성 문인들을 발굴하고 알리는 역할도 해왔다는 것은 여성주의운동 단체 및 활동가들이 사이버로 물리적 공간을 넓히면서, 그 주제와 내용의 영역도 확장시킨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2. 주부생협·한살림운동

1980년대 후반부터 주부층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생활협동조합운동(생협운동)은 당시의 대중 페미니즘 담론의 확산과 무관하지 않다(김종미, 2004). 여성주의 이론에 익숙한 소수의 엘리트 그룹만의 여성주의운동이 아닌, 일반 여성의 모다 폭넓은 여성주의운동에의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전개되기 시작한 대중 페미니즘 담론은 생활협동조합운동이라는 구체적인 “방법론상의 모멘텀”을 확보하였으며, 중앙의 소수가 아닌, 지방과 지역에서 여성주의에 기초한 공동체운

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였다(김종미, 2004:56-57).

생협운동은 먹거리와 생활 속 환경문제에 민감한 여성의 공적, 사적 공간에서의 위치와 여성으로서의 성역할과 강한 관련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가사와 육아,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여성들의 현실적 토대인 생활세계 영역은 온전히 사적이기만 한 공간이 아닌, “정치적인 공간”이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생활정치³⁾라는 개념이 대중화되고 그 중요성이 인식되는 데 생협운동이 기여한 바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이들을 더욱 약하게 만드는 사회구조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는 면에서, 가부장적인 사회관습과 제도에 대한 비판을 해왔던 여성주의운동과 생협운동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었다.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성은 주체가 되었으며, 세력화되었고, 여성들이 민감하게 느끼는 이러한 생활영역에서의 문제들은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생협운동은 여성주의나 생태사상과 같은 거대담론이 지역에 사는 여성의 구체적인 현실생활로 내려가 일상생활을 여성주의적인 이슈로 정치화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생활정치의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여성 활동가들이 발굴되었다.

대중 페미니즘 담론의 확산에 의해 여성주의와 결합한 생태주의는 많은 중산층 여성들의 지지를 받기도 하였다. 1990년대 생협 매장이 확대되면서, 보다 더 많은 여성, 그리고 여성주의에 익숙한 엘리트 여성이 아닌, 일반 여성들과 가까워진 생협운동은 “생태여성주의적 가치”를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시켜 나갔다(김종미, 2004).

3) 생활정치란 기존 공사영역의 이분법 속에서 공적인 영역의 것으로만 여겨졌던 정치 개념을 생활의 영역에서 재개념화한 것이다(이현희, 2004). 다시 말하면, 기존의 공적인 제도 정치를 중심으로 사고되던 정치 개념을 확장, 재구성하여 공적 영역에서의 정치제도가 지니고 있었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일상생활에서 보다 요청되는 화두를 정치적인 것으로 재정립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많은 경우 생활정치의 장에서는 여성들이 리더로, 혹은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생쓰레기퇴비화 운동은 생협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무농약, 유기농산물을 지역 공동체 단위로 구입하고 분배하면서 주부들이 계란껍질이나 야채 다듬은 것 등 조리 전의 음식물 쓰레기를 농촌의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에 나온 실천운동이었다(김종미, 2004). 환경운동을 밖이 아닌, 내가 살고 있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서 실천할 수 있다는 녹색아파트만들기 운동, 어린이환경학교, 농촌마을과의 연계를 통한 농촌 체험 교육, 우리 마을 생태 탐사 등의 활동은 지역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면서, 동시에 환경보호, 그리고 생태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홍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1989년 결성된 한살림운동조직도 위와 대동소이한 과정을 거치며 발전해 왔다. 당시 심각하게 대두된 환경위기와 확산되기 시작한 생태주의, 동학사상이라는 한국 철학적 배경 등이 기초가 된 한살림운동은 이론적 탐색을 위한 전문가 그룹의 공부모임에서 시작하여, 점차 가입하는 회원의 수를 늘리고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이들이 한살림운동을 시작하면서 발표한 한살림선언은 산업문명이 낳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고민과 진단이 섞여 있으며, 어떠한 ‘주의’나 이념을 뛰어넘어 “생명의 세계관”을 이야기 한다. 인간과 자연, 풀과 동물, 물, 바람 등 모든 생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완전한 생명세계를 갖추게 된다는 주장은 이 운동의 사상적 가치가 여성들이 중심이 된 생태운동이나 환경운동, 즉 생활정치운동과 연계될 수 있는 지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성미산마을운동

지역운동은 지역적 공간을 토대로 지역 생활에 기반을 두고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운동이다(이주영, 2006). 지역운동은 거시적인 정치적 담론이나 이념보다는 지역에 살면서 피부로 직접 느껴지는 구체적인 문제들,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이해와 요구를 분출하는 창구가 되기도 한다.

지역운동이 거시적인 정치와 이념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 해도, 생활

정치라는 개념이 말해주듯,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정치화하면서, 정치적으로 다루면서 기존의 거대담론과의 접점을 찾기도 한다. 또한, 지역 운동은 일상생활을 통해 경험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그 공감대 형성이 용이하고 강하며, 따라서 운동의 지속성도 용이하게 확보될 수 있다.

성미산마을운동은 1990년대 중반부터 마포구에서 시작된 공동육아 협동조합과 두레생활협동조합의 경험과 발전된 형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994년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2001년에는 마포두레생활의 설립이 이루어지면서, 주민들은 육아와 먹을거리, 아동교육을 아우르는 주민운동이 시작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주민들 간에는 상당한 신뢰감과 연대감, 공동체의식이 짙어졌다고 볼 수 있다.

마포구 성산동 주민 10명이 시작한 공동육아조합은 부모 참여형 협동조합 어린이 집으로 구상되었으며, 제2, 제3의 유사한 공동 육아를 위한 참여형 어린이 집들이 생겨났다.

어린이 집 이용을 끝낸 초등생을 위한 방과후 교실도 운영하면서, 공동육아 어린이 집과 방과후 교실을 이용하는 가구들이 모인 성미산 마을은 후에도 마을 공동체를 위한 각종 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성미산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생태학습활동, 어른을 위한 휴식의 공간을 마련했으며, 성미산을 대지로 변경하여 아파트를 짓고 배수지를 건설하려는 서울시와 개발업체에 맞서 주민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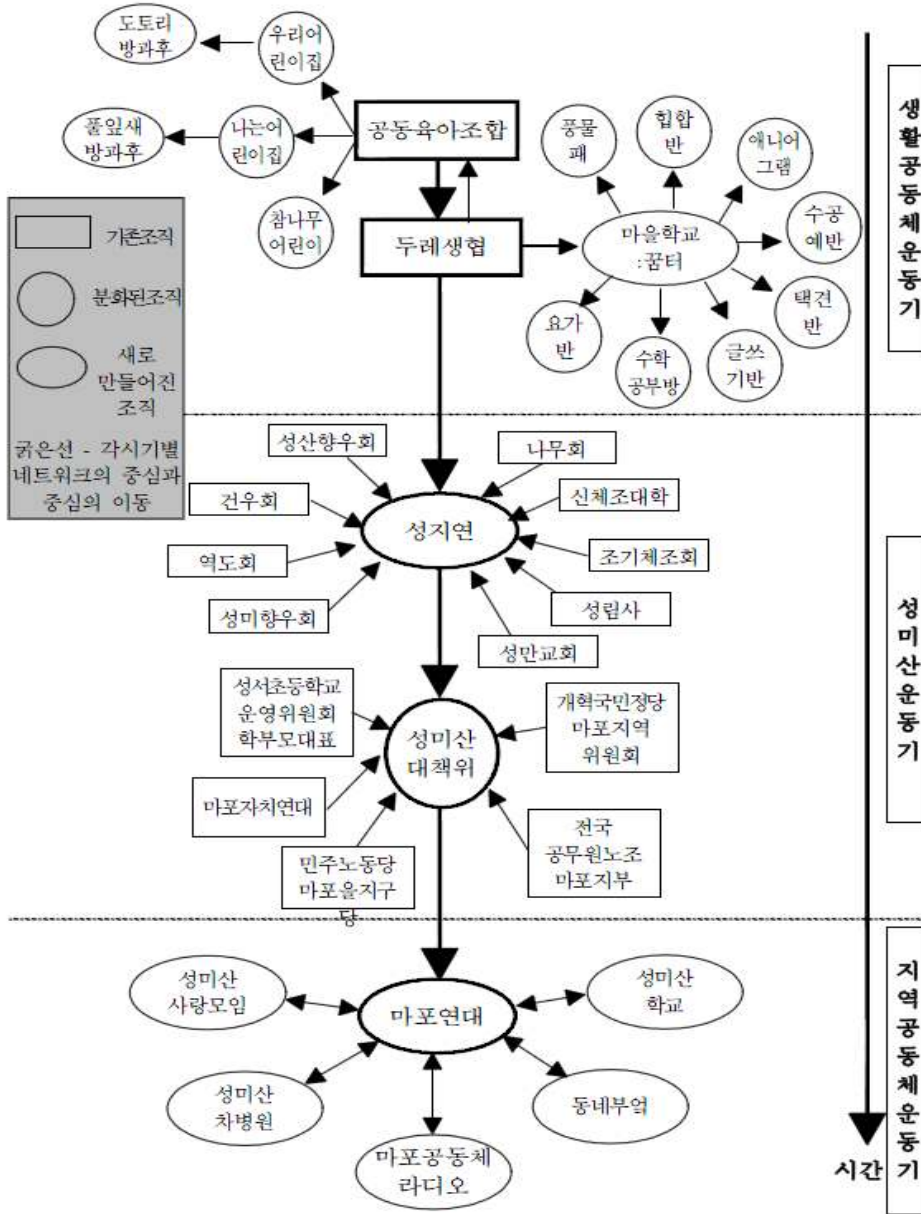
마포두레생활협동조합은 주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이루기 위하여 2001년 설립되었다. 먹거리를 공급하고 소비하는 매장에서 더 나아가, 교육과 환경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관련한 활동을 전개하는 구심점이 된 협동조합은, 유기농산물 직거래활동뿐 아니라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생활공동체에 대한 모색, 마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 등 공동체문화운동의 근거가 되었다.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시작된 성미산마을의 사례는 성미산을 살리기 위한 지역운동의 성격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보다 강한 조직과 연대를 형성한 지역공동체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공동육아조합을 통하여 생활공동체를 구성하려 했던 초기 성미산마을운동은 이 조직을 토대로 지역의 다른 주민조직들과 연계되는 네트워크가 활발해졌고, 이 때 형성된 네트워크는 성미산 살리기 운동을 기점으로 더 넓게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김상민, 2005).

아래 그림은 생활공동체운동에서 성미산 살리기 운동으로, 그리고 지역공동체운동으로까지 넓어진 운동의 영역과 네트워크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화된 운동 내용과 참여하는 조직과 모임의 수, 그리고 범위의 확대 및 연계의 강화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성미산마을운동 각 시기별 네트워크 형성4)



4) 김상민, 2005, "주민환경운동과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배수지건 설반대운동'을 사례로"에서 재인용.

부엌과 학교, 병원, 라디오 등 성미산 일대의 지역공동체운동은 발생의 기초와 근거를 제시하는 가치가 매우 일상적이며, 생활 밀착형이다. 육아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성미산 마을의 지역공동체운동 사례는 기존의 남성중심적이었던 정치, 노동과 경제, 환경운동 등의 가치와 실천 방식과는 다른 여성적 가치와 운영 방식에 따른 성공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작은 고민과 협동에서 시작된 운동이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발전을 모색하는 거시적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4. 풀뿌리시민운동

민주화와 시민의 정치적 세력화를 위한 민주화운동과 노동자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전통적인 노동운동이 한국 사회에서 차지해 온 사회운동의 큰 두 줄기였다면, 1980년대 후반부터, 그리고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전개된 시민운동은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총체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앞 선 정치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과는 차별화된 지점에서 출발하였다.

시민사회운동은 생활복지의 문제, 공해와 환경의 문제, 인권과 평화 등 도시 생활자들에게서 흔히 경험되는 생활의 문제에 기반하여 논의와 활동을 전개해 갔으며, 최근에는 내생적 지역사회개발과 풀뿌리 시민 활동의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운동이 보다 활발해지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를 거점으로 한 풀뿌리시민운동, 지역민을 위한 의료 생협,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사회적기업까지 보다 다양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지역 사회에서 시민들의 협동적 방식에 의한 경제활동과 자립, 자조의 가능성에 대한 타진은 그 역사가 그리 짧지 않다. 협동조합운동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으며, 2000년 대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난 풀뿌리시민운동에 대한 관심은 마을운동, 주민자치활동 등이 조직되면서 본격적으로 실천의 방법을 모색하였다.

1999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한 주민자치센터는 행정방침에 의한 것으로, 정부가 주도한 하향전달식 자치형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점으로 한 주민들의 자치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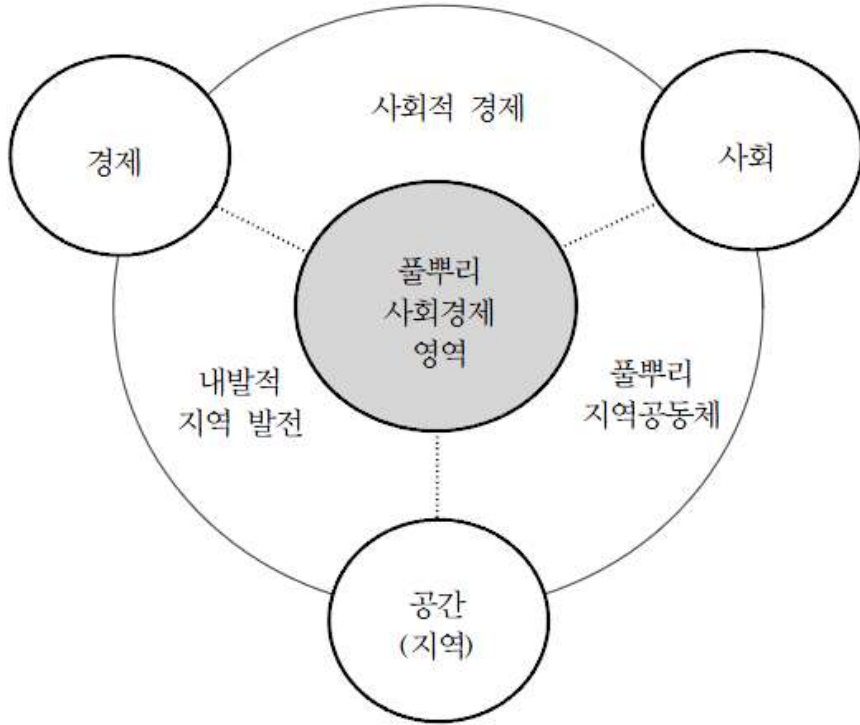
은 보다 더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박홍순, 2010).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재활용 가게, 문고, 농산물 직거래, 복지서비스, 교육서비스 등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지역 브랜드의 개발과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등이 고민되었다.

2000년대 이후 등장한 거시경제에 대한 불안감, 분배의 불합리성, 낙오와 소외라는 심리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은, 일상적인 삶과 밀착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삶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지역은 국가와 시장의 실패가 종합적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이자 동시에 문제해결의 중요한 거점이기도 하다(정규호, 2008). 시장의 문제를 공동체에서 재구성하고, 공공성과 신뢰를 회복하여 기존의 거시 시장경제가 만들어냈던 부작용들을 해소하려는 노력들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국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가 각 경계와 영역을 넘어서서 연계되는 지점에 풀뿌리시민운동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혹은 '사회적 기업'의 형성과 발전이 있다.

사회적 경제는 기존의 경제 개발 및 성장의 논리가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을 분리시킨 채 규모의 경제 논리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점을 비판하면서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가치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사회적 경제는 성장을 지향하지는 않지만, 협동과 자조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지역 및 지역공동체성과의 연계와 지역 주민의 주체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사회 경제적 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지역 자립의 경제를 구축하는 것을 대안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정규호, 2008; 박홍순, 2010).

[그림 3] 풀뿌리 사회경제 영역⁵⁾



위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풀뿌리시민운동의 영역에서 지역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은 시민 개인에게 생활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삶의 장소이며, 경제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능동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것, 지역 경제 발전의 담론은 오랫동안 생산되어 왔지만, 시민 개인이 느끼는 경제적 성장과 발전은 사실 지역 안에서, 내 삶의 터전 안에서 가능하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 위 그림에서처럼, 풀뿌리시민운동의 사회적경제활동은 개인에게는 가까운 삶의 터전에서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하는 길이고, 지역사회적 측면에서는 지역 내 시민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성장의 동력을 의미하

5) 정규호, 2008, “풀뿌리 사회경제 거버넌스의 의미와 역할: 원주지역협동조합운동을 사례로”에서 재인용.

기도 한다.

강원도 남서부에 위치한 원주시가 1970년대부터 시작해 온 '생활자치운동,' '협동운동,' '생명운동'은 풀뿌리 차원의 사회적 경제 거버넌스 모델을 현실화하는데 타 시도 활동가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2만여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협동조합은 지역 금융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친환경농업의 확대 및 유통,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사업 진행, 시민운동단체 지원, 육아와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생활정치적인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정규호, 2008; 박홍순, 2010).

제 3 장

대전지역의 특성 및 여성중심 지역공동체운동의 현황

제1절 대전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제2절 대전지역 여성참여 지역공동체운동 주요 사례

제3장 대전지역의 특성 및 여성중심 지역공동체운동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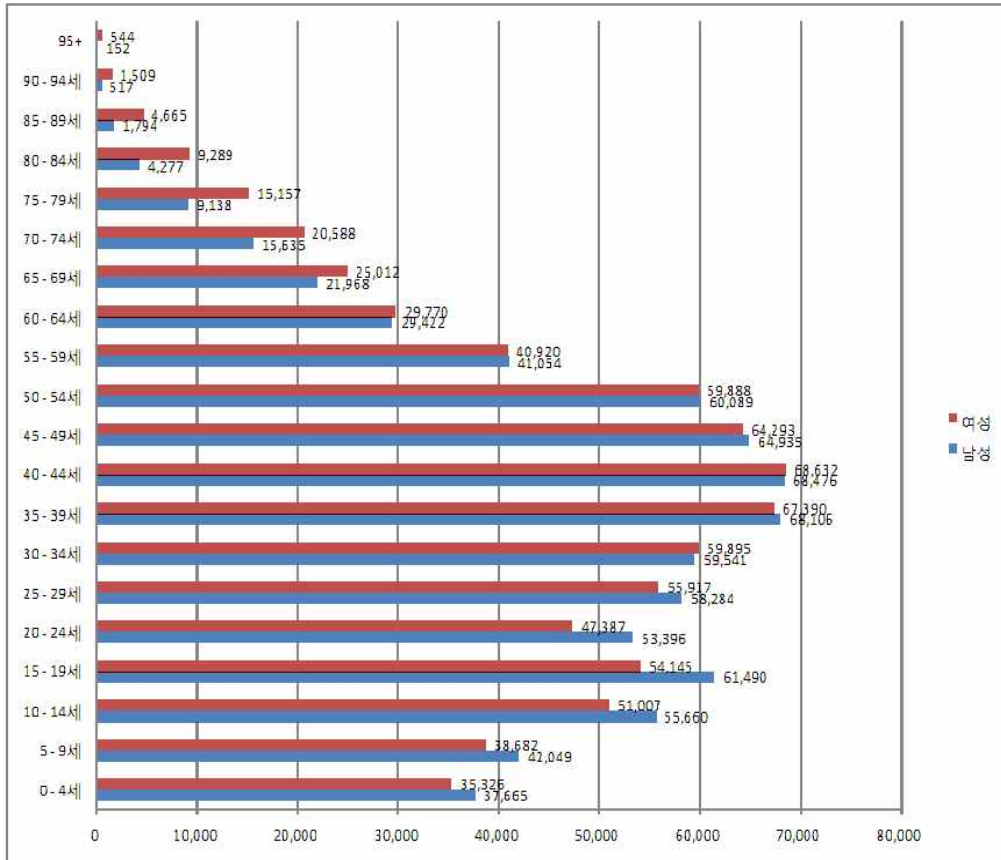
제1절 대전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 인구구성

대전광역시의 총인구는 2010년 1,503,664명이며, 이 중 여성이 750,016명, 남성이 753,648명으로 여성인구보다 남성인구가 다소 많다. 연령계층별 인구구성을 살펴보면, 20대까지 남성인구가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30대부터 60대까지 성별로 비슷한 인구 분포를 보이다가, 60대 후반부터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 연령계층별 인구구성(2010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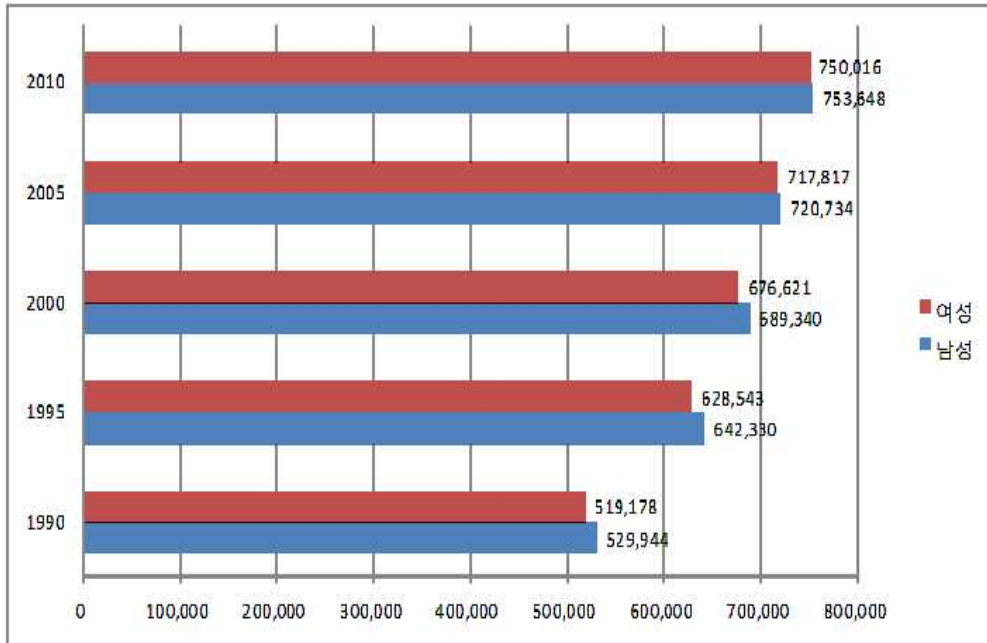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DB 웹서비스

대전광역시는 젊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도시인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시간 간격을 두고 살펴본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1990년 이후 5년 간격으로 대전시 총 인구의 성별구성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 여성이 519,178명, 남성이 529,944명으로 남성인구가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역시 여성이 750,016명, 남성이 753,648명으로 총 남성인구가 여성보다 약간 상회하여 성별구성상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총인구 추이

(단위 : 명)



자료 : 통계청, KOSIS DB 웹서비스

주 : 1990~2005년 인구 -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10년 - 주민등록인구 통계임.

대전광역시 여성의 인구구조 상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연소연령(14세이하)의 인구는 전체 대전 여성인구 중 16.7%를 차지하고 있다. 생산연령이라 부르는 15세에서 64세의 인구는 전체 여성인구의 대부분(73.1%)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령인구(65세 이상)는 여성의 10.2%에 달하고 있다. 활동력이 왕성한 인구비율이 전체 대전 여성의 73%에 달하고 있고, 노령인구에 비해 연소연령인구비율이 높아, 대전은 이른바 '젊은 도시'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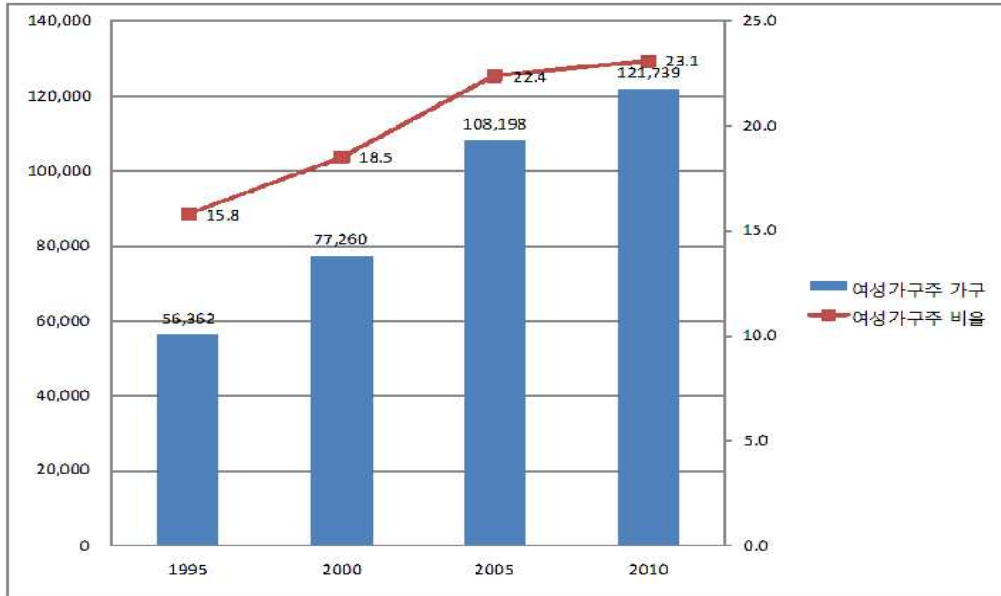
2. 대전여성의 출산과 육아, 가족

여성의 생애주기 활동 중 가장 중요한 경험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출산과 관련한 통계를 보면, 전국적인 경향과 마찬가지로, 점점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 출생구성비를 살펴보면, 1987년에 20~24세 29.2%, 25~29세가 28.6%, 30~34세가 21.2%로 주로 20대와 30대 초반에 걸쳐 비교적 고른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1997년에는 25~29세가 54.7%, 30~34세가 21.8%로 20대 후반에 출산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가, 2007년에는 25~29세가 38.2%, 30~34세가 42.6%로 점차 30대 초반의 출산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도 2008년과 2009년도 30-34세가 103.8%, 102.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학력기간의 연장과 사회활동의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르는 출산연령의 노령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전광역시 거주 가구주 중 여성 가구주의 분포 변화는 여성의 지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면서도, 홀로 경제활동을 통해 가족구성원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여성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과 이에 따르는 여성의 빈곤화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결과를 보여준다. 대전의 여성가구주 비율은 1995년 56,362가구로 전체 가구주의 15.8%를 차지했으나, 2000년엔 77,260가구로 18.5%, 2005년에는 108,198가구로 22.4%, 2010년에는 121,739가구로 23.1%를 보이면서 점차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6] 여성 가구주 가구분포

(단위 : %, 가구 수)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통계청, KOSIS DB 웹서비스.

대전지역의 여성 가구주 분포가 증가한다는 것은 여러 요인에 의한 것일 수 있다. 이혼율의 증가가 큰 요인일 수도 있으며, 새로운 가족 형태의 등장(주말부부, 기러기 가족 등)에 크게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는, 여성 가구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가구를 책임지고 가족 구성원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더 많이 놓여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앞으로 이 여성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자립지원, 그리고 사회적 활동 지원에 대한 정책이 더욱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전광역시의 한부모 가구 상황을 살펴보면, 한부모 가구도 꾸준한 증가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전지역 가족 중 한부모 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7.5%, 2000년 8.4%, 2005년 9.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중 편부가구는 1995년 전체 대전광역시 가정 중 1.3%, 2000년 1.6%, 2005년 1.9%로 증가하고 있고, 편모가구도

1995년 6.2%, 2000년 6.8%, 2005년 7.5%로 증가하고 있다.

<표 3> 2009년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한부모 가구

(단위 : 세대, 명)

보호현황 가정현황		계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국민기초 수급대상	국가보호 대 상
			소계	재가보호	시설보호		
합 계	세 대	6,286	2,702	2,701	1	3,582	2
	인 원	16,942	6,948	6,945	3	9,988	6
모자가정	세 대	4,986	2,038	2,037	1	2,947	1
	인 원	13,498	5,222	5,219	3	8,274	2
부자가정	세 대	1,300	664	664		635	1
	인 원	3,444	1,726	1,726		1,714	4

자료 : 대전광역시 복지여성국 내부자료, 2009년 12월 말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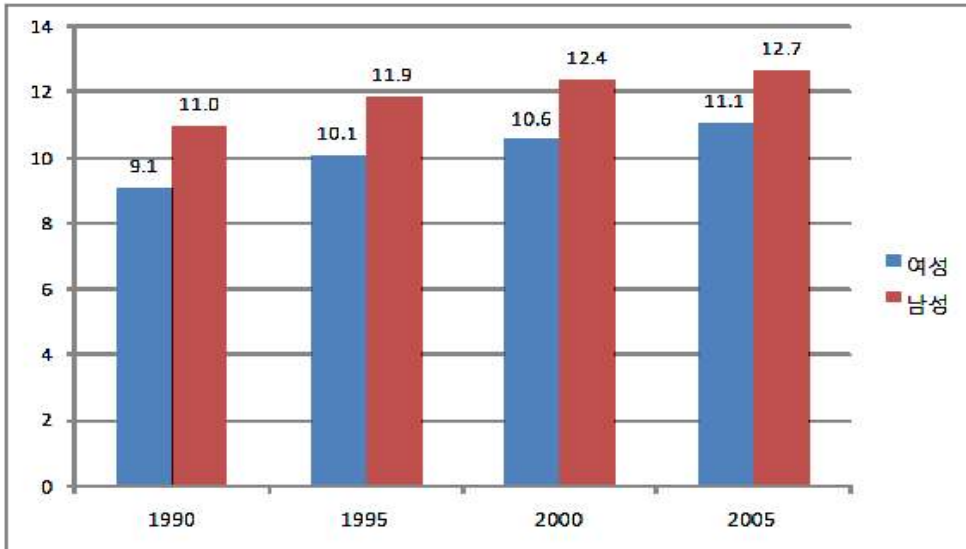
최근 대전광역시 한부모 가족의 현황을 보면, 부자가정이 전체 한부모 가족 중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자 가정에 대한 한부모 가족 지원 대책의 마련이 고민되어야 하는 가운데, 여전히 한부모 가정(미혼모 가정도 포함하여)의 대부분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자립 지원, 정서를 비롯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때임을 알려주고 있다.

3. 대전여성의 교육 및 경제활동

대전 여성의 평균 교육년수는, 1990년 9.1년, 1995년 10.1년, 2000년 10.6년, 2005년 11.1년으로 점차 길어지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평균 교육년수는 각 조사년도마다 약 1년~2년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7] 평균 교육년수

(단위 :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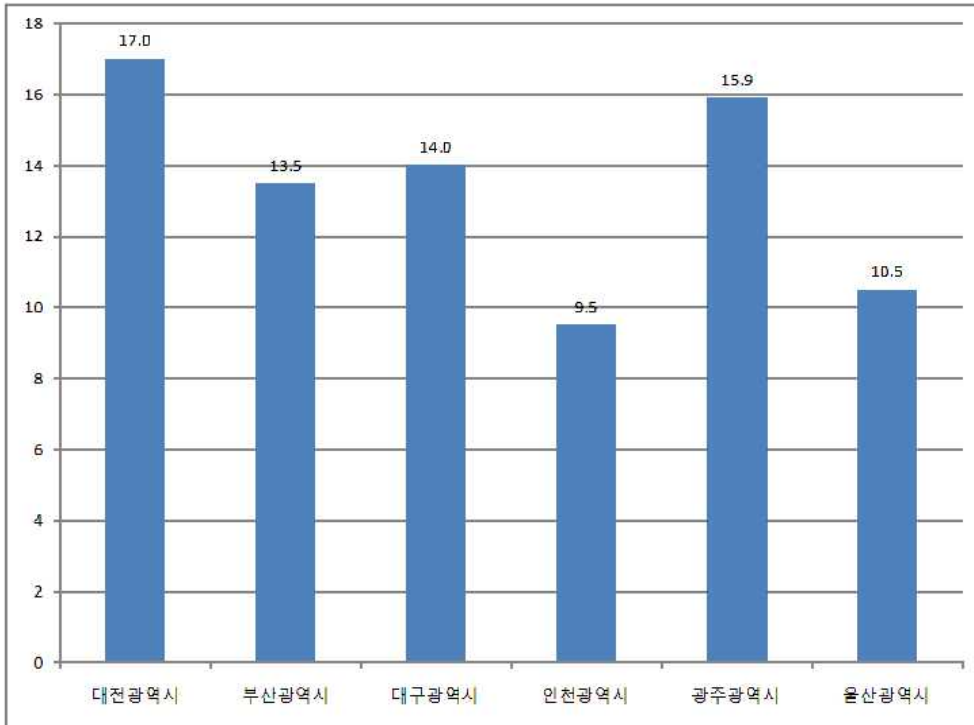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대전광역시는 인구학자들 사이에서, ‘젊은 도시’이면서 또한 ‘여성 고학력 도시’로 알려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9년 12월 현재, 18,941명에 이르는 연구기관 종사자들이 다양한 과학산업분야 및 연구개발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대전은, 30세 이상 여성 교육년수가 6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여성 고학력 도시”이다. 한국통계청(2005)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30세 이상 여성의 평균 교육년수는 11.34년이며, 6대 광역시의 30세 이상 여성 교육년수는 11.34년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전광역시 30세 이상 여성의 교육년수는 11.72년인데, 이는 6개 광역시 중 가장 긴 것으로, 고학력 여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 고학력 도시 대전의 특성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통계자료는 4년제 대졸여성의 비율이다. 광역시별 여성인구 중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비율을 살펴보면, 대전의 여성이 1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광주 15.9%, 대구 14.0%, 부산 13.5%, 울산 10.5%, 인천 9.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8] 광역시별 여성인구 중 4년제 대학 졸업이상의 비율(2005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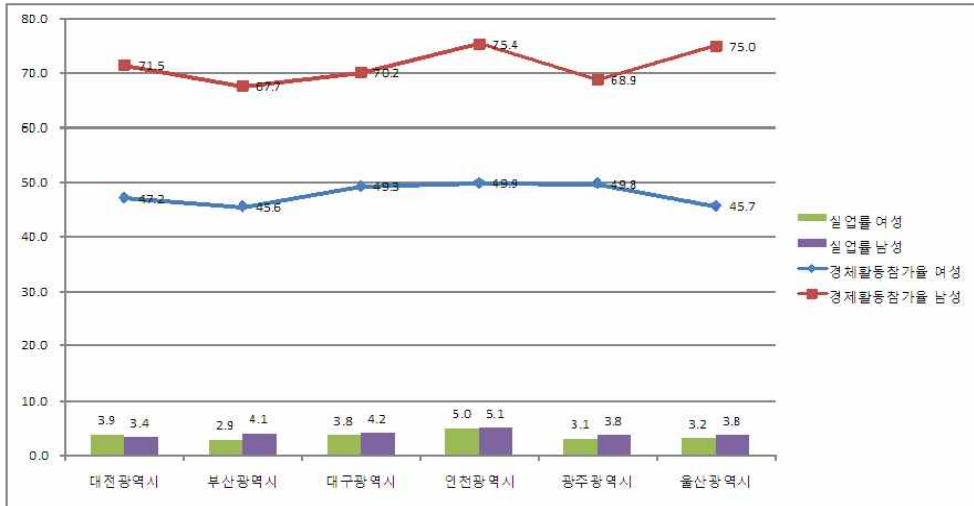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젊고 고학력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전국 여성들의 평균적인 활동에 비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전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 47.2%로 조사되고 있는데, 많은 여성 유휴 인력, 고학력 여성 유휴 노동자원이 예상된다.

[그림 9] 광역시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률 추이(2010년)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10년 조사 당시, 전국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49.4%이며, 대전광역시는 대전 엑스포가 개최되었던 1993년 전후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전국 여성 평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뿐 아닌 여러 영역에서 비교가 되곤 하는 대구광역시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전국과 유사하게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볼 때에도 대전 지역의 여성의 경제활동지원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임을 알 수 있다.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통계청 자료는 여성 유희인력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2010년 8월 현재,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현황에 따르면, 육아와 가사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인구의 비율은 전국 45.3%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비해, 대전광역시는 47.3%로, 6대 광역시 중 울산광역시(50.6%)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다. 육아와 가사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주로 여성임을 생각할 때, 대전광역시 여성들이 다른 광역도시의 여성들, 전국의 다른 여성들에 비해 육아와 가사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대전광역시에는 교육년수가 길어 상대적으로 고학력 여성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면서도, 육아와 가사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 비율은 높은, 즉, 고학력이면서 육아와 가사로 인한 유희여성인력의 상대적 비율이 높은 도시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황과악을 바탕으로 고학력 여성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대전의 대졸이상 여성의 직업별 취업자 비율을 살펴보면,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한 여성 경제 활동의 특성이 나타난다. 대졸 여성의 47.1%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무종사자가 31.1%, 판매종사자가 12.6%, 서비스종사자가 5.9% 순으로 나타났다. 관리자 비율이 0.8%로 매우 낮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약 18% 정도가 판매 및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반면, 기계나 생산 분야에서의 여성 활동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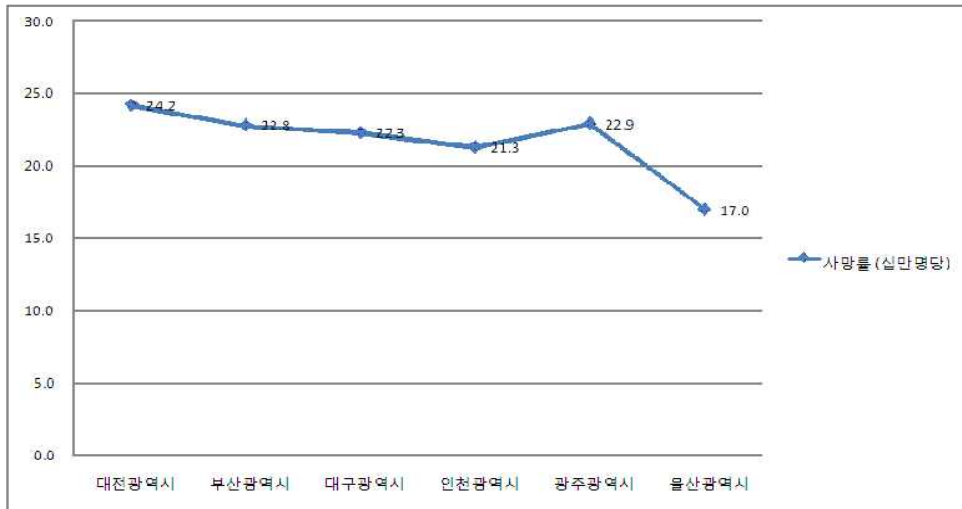
4. 대전여성의 복지와 여가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논의할 때 많이 쓰이는 자료는 유병률과 사망률 등 건강과 보건에 관한 것이 많다. 최근 신체의 건강과 더불어 많이 논의되는 것이 정신의 건강, 정서적 안전감과 같은 또다른 영역에서의 삶의 질 향상, 복지이다.

광역시별 여성의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률을 살펴보면, 대전이 여성인구 십 만 명당 24.2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광역시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 여성의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률(2009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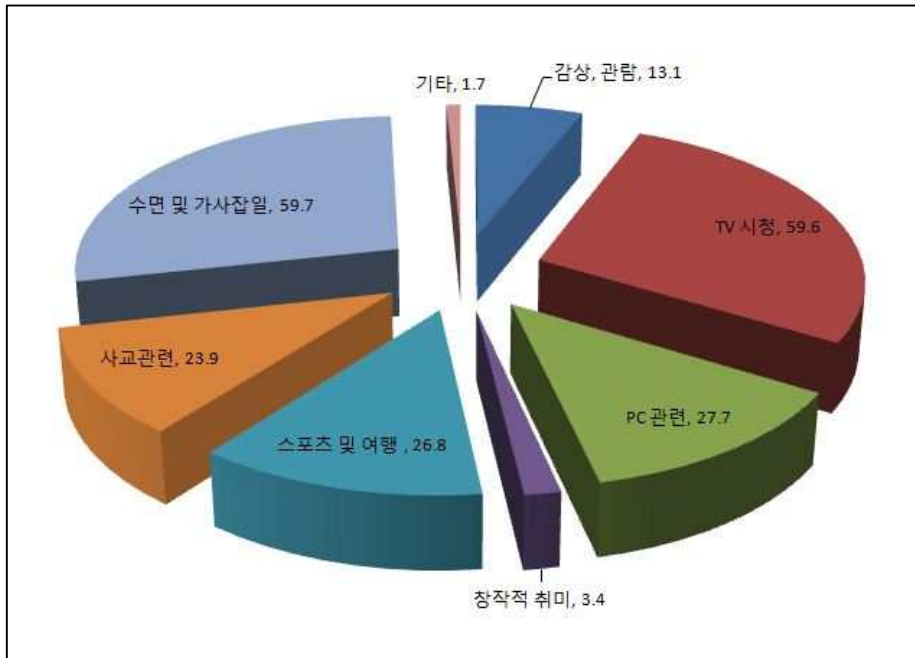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고학력이고 소득이 높을수록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은 한국뿐 아닌,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며, 전문가들은 자살을 일종의 '선진국병'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다른 광역시에 비하여 대졸 여성의 비율이 높고, 교육년 수도 높은 대전 여성들의 특성을 감안하면, 가장 높은 자살률을 이해할 수 있을런지도 모른다. 한편, 높은 학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이나 가부장적 사회통념에 의한 경제활동 자제 등은 대전의 여성들이 처한 독특한 정서적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활동과는 다른 지점에 있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서적 안정감과 기쁨 등을 느끼게 해줄 여가활동을 대전 여성들은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그림 11] 여성의 주된 여가 활동(2009년)

(단위 : %)



자료 : 통계청, KOSIS DB 웹서비스, 2009년
 주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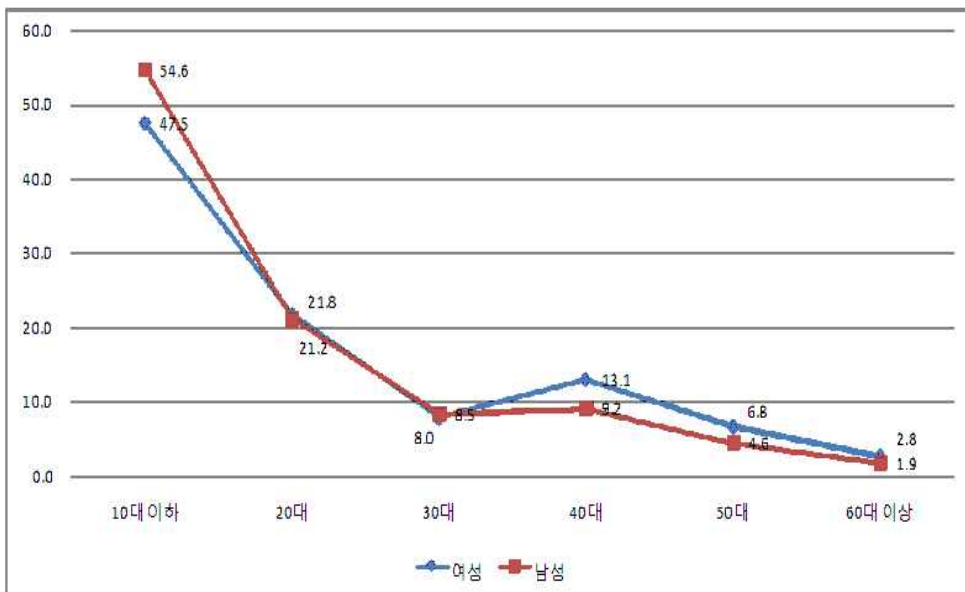
전체 여가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활동들이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 '수면' 'TV 시청' 등의 활동이 여가활동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 이는 집 안에서 혼자 혹은 가족끼리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사교'와 관련한 활동이나 '감상과 관람' 등 외부에서 타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홀로 여가를 즐기는 여성들을 지역 공동체 사회로 끌어내고 함께 활동을 하므로써 느끼는 연대의식과 보람을 경험하게 할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할 때다.

지역의 여성들이 공동체사회에 참여하고 강한 연대 의식을 느낄 수 있는 한 방법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통계결과를 보면, 앞으로 자원활동을 통한 여성의 공동

체 참여 방법 및 동기부여의 계기가 더욱 활발하게 모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대전의 자원봉사자 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 이하가 여성과 남성 모두 47.5%, 5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학교를 통한 자원봉사활동의 권장과 의무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 시기가 끝 난 뒤, 20대부터의 자원활동경향의 파악이 더욱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2] 연령별 자원봉사자 현황(2007년)

(단위 : %)



자료 : 통계청, 2007년

위 그림에 나타나 있듯이, 자원봉사자의 비율은 성별에 관계없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0대 이후, 여성 자원봉사자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20대(여성 21.8%, 남성 21.2%)와 30대(여성 8.0%, 남성 8.5%) 봉사자 비율이 남녀 차이가 거의 없다가 40대와 50대에 이르러 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에 주목하여, 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2절 대전지역 여성참여 지역공동체운동 주요 사례

1. 대전광역시의 여성단체지원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 보호, 사회참여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전지역 내 여성단체들은 대전광역시가 파악하고 있는 수가, 2010년 말 기준으로, 34개이며 이들은 대전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단체들과 이에 미가입되어 있는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2010년 대전광역시 여성단체 현황

(단위: 수, 명)

구 분	계	협 의 회 가입 단체	협 의 회 미가입 단체
단 체 수	34	13	21
인 원	76,035	63,038	12,997

위 표에 나타나 있듯이,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단체들이 수는 상대적으로 미가입 단체에 비해 적으나, 가입된 회원의 수는 상당한 차이로 많으며, 협의회에 미가입된 단체들은 소규모로 다양한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운영되어 오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2001년 12월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여성발전·복지기금을 조성, 해마다 지역의 여성단체들의 활동에 지원을 해 오고 있다. 여성발전·복지기금은 2009년 12월 현재, 21억 여원으로, 2015년까지 5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성발전·복지기금은 대전지역 여성단체의 활동지원, 가정·성폭력방지사업, 여성지도자육성사업, 여성의 취업정보서비스사업, 결혼이민자지원사업 등에 쓰이고 있으며, 단체의 사업 지원 신청 후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지원해 오고 있다.

<표 5> 대전광역시 여성단체 지원 내역

(단위: 천원)

년 도	계	'96~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지 원 액	1,042,968	600,820	84,075	72,500	65,716	72,621	74,000	73,236
지원사업 (지원단체)	292개사업 (212개단체)	186개사업 (129단체)	29개사업 (21단체)	23개사업 (17단체)	19개사업 (17단체)	17개사업 (14단체)	18개사업 (14단체)	19개사업 (15단체)
기금잔액	-	1,718,373	1,817,764	1,876,114	1,960,607	2,009,904	2,082,568	2,183,854

대전광역시는 2010년, 13개 여성단체, 18개 사업에 대하여 약 7천 3백만원 정도를 지원하였는데, 매년 지원하는 여성주간 대전광역시여성대회와 신년 교례회 등을 비롯하여, 13개의 신규 기획 사업에 지원을 하였다. 신규 기획 사업으로는 대전여민회의 여성가장지원사업, 대전여성장애인연대의 여성장애인 권익 증진사업, 대전YWCA의 여성포럼, 여러 여성단체의 각종 리더쉽 교육 등이 있다.

2. 대전여민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운동

대전지역의 여성주의운동은 1987년 충남여민회로 출발한 대전여민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임우연, 2007). 한국여성단체연합에 가입되어 있는 대전여민회는 ‘생활 속의 여성운동,’ ‘대안 있는 여성운동,’ ‘함께 하는 여성운동’이라는 표어 아래(임우연, 2007: 44), 고용평등 및 고용안정과 같은 노동과 경제활동에서의 여성 처우 개선에 대한 이슈, 정치와 성평등 이슈, 그리고 200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서는 어린이도서관이나 여성이 중심이 된 사회적 기업 같은 다양한 생활의 영역으로 그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표 6> 대전여민회 주요 활동 내용

영역	활동내용
풀뿌리 주민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촌동 마을어린이도서관 <짜장> 운영 아이들 및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소모임 및 교육 프로그램, 마을 탐방 프로그램 등 운영 • 품앗이 주민 강좌 운영 '건강음료, 천연화장품, 천연비누만들기, 한지공예, 폼아트' 등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배우고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 재능기부의 형태를 띤 공동체 참여 활동 • 마을카페 <자작나무 숲> 운영 차와 커피 판매, 지역 소공동체 모임의 장소 제공, 여성자립공동체에서 만든 물품 판매 등
여성가장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가게> 저소득 한 부모 여성가장의 창업을 지원하는 '희망가게'는 「아름다운세상기금」을 통해 지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 부모 여성 가장 중 창업을 준비 중인 여성가장 지원 • 여성가장진급지원 SOS캐쉬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경제적으로 긴급한 위기에 처한 여성가장에게 최고 500만원 까지 무담보대출 지원. 가족에게 필요한 교육 및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성인권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운영 상담 및 피해여성지원, 법률지원, 교육 및 조사, 홍보활동, 자활지원센터, 조직활동, 의료지원, 타 기관 연계, 긴급구조활동, 성매매예방교육, 성매매방지캠페인, 여성인권축제등 성매매예방활동 전개 • 대전여성자활지원센터 <너른마당> 운영 공동작업장 운영, 직업훈련지원, 타 기관 및 타 사업장 인턴쉽 연계 사회적 일자리 사업 연계. 대안적 일자리 모색활동으로 비즈공예, 뜨개질, 소품제작 등 작업활동 전개
성평등교육	<p>여성주의와 여성폭력에 관심 있는 회원들과 함께 '강사뱅크'구성, 학습 및 강사 활동 진행. 자체적인 강사양성과정을 통한 강사배출, 여성폭력관련 교육, 노동인권 교육 등 다양한 교육활동 진행. 여성주의 학습 / 노동인권교육 / 성평등 교육 / 성매매방지교육 / 성폭력방지교육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p>
회원연대	<p>각종 정책 포럼, 3.8 여성의 날 기념행사, 대전광역시 여성주간행사 등</p>
여성정치참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리더쉽 교육, 지방 선거 후보자 지원 등

대전여민회의 활동을 살펴보면, 최근 지역여성주의운동이 공동체적 이념과 여성주의, 그리고 생활정치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그 영역을 다층, 다중화하고 있는 경향이 대전지역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방자치제의 실행 이후, 시민이 직접 선출한 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 정치 상황은 지역 운동 및 시민 참여형 정치의 활성화를 이끌었다. 지역운동 역시, 생존형 혹은 생존권 보장형 이슈에서 확대되어 다양한 운동의 이슈들이 제기되었으며, 참여하는 계층역시, 사회적 약자층에서 보다 더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되었다.

지역운동의 이 같은 변화는 여성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지역 여성주의운동의 성격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정립의 문제도 다양한 접근이 가능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전까지의 지역운동이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 관계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지방의회 진출, 시민 간담회, 민관 협력 사업 실행 같은 양자 간의 대화와 협력이 더욱 강조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여성주의운동은 자발적인 시민 주체의 참여가 기반이 되는 '생활정치'를 실천하는 운동으로서 미시적인 차원에서 정치에 대한 대안적 개념을 창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생활정치 이념은 지역 발전이나 지역정체성과의 연계 및 여성운동이 조직화 되고 세력화 될 수 있는 전략의 지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마을어린이도서관

대전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린이마을도서관은 중구 중촌동에 위치한 <중촌마을어린이도서관 짜장>이라 할 수 있다. 2004년 대전여민회의 마을소모임인 '동화 읽는 엄마모임'에서 출발한 짜장어린이도서관은 아이를 키우면서 여성들이 흔히 고민하는 문제들을 공감하고 함께 해결해보려는 시도에서 출발한 자발적인 공동체운동집단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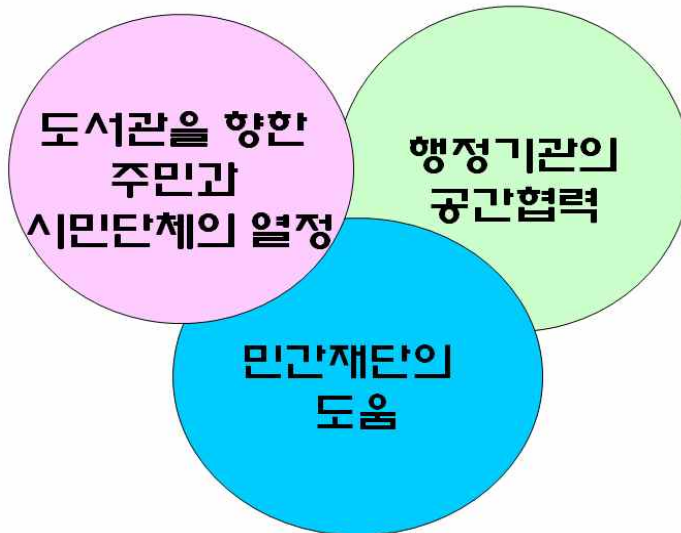
육아와 관련한 정보를 아는 사람들끼리만 교환하고 협력하는 단계에서 발전하여, 당시 누군가의 어머니였던 여성활동가들은 어린이들에게 책 읽을 공간을 주고, 그

공간에 찾아 온 어린이들만을 보살피던 활동에서 마을공동체로의 활동 지향을 넓혀 나갔다.

마을 인근 공원에서 '어린이 벚꽃 장터 코너'운영을 시작으로 '어린이 책잔치,'음악회와 영화관'을 마을 공원에서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과 아이를 함께 키우는 것, 짜장 어린이 도서관의 설립 취지인 마을이 함께 하는 육아와 교육의 정신을 공유하였다.

이러한 마을 주민들과의 인식 공유는 직접 공간을 마련하고 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중촌마을어린이도서관 추진모임이 2006년 결성되면서 본격적으로 마을어린이도서관 개관을 준비하여, 2007년 2월, 중촌동에는 <중촌마을 어린이도서관 짜장>이 개관하게 되었다.

[그림 13] 중촌마을어린이도서관 짜장의 협력 체계도



출처: 중촌마을어린이도서관 개관 3주년 기념 워크숍 자료집

짜장 마을어린이도서관은 도서관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발전에 기여한 협력 체계를 위 그림에서와 같이 3가지 섹터sector를 기반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는 어머니들의 사적인 바람과 관심, 그리고 열정과 이를 재정적으로 후원하였던, 사회적 기여에 관심이 있던 민간기관, 그리고 설립과 운영의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 공공기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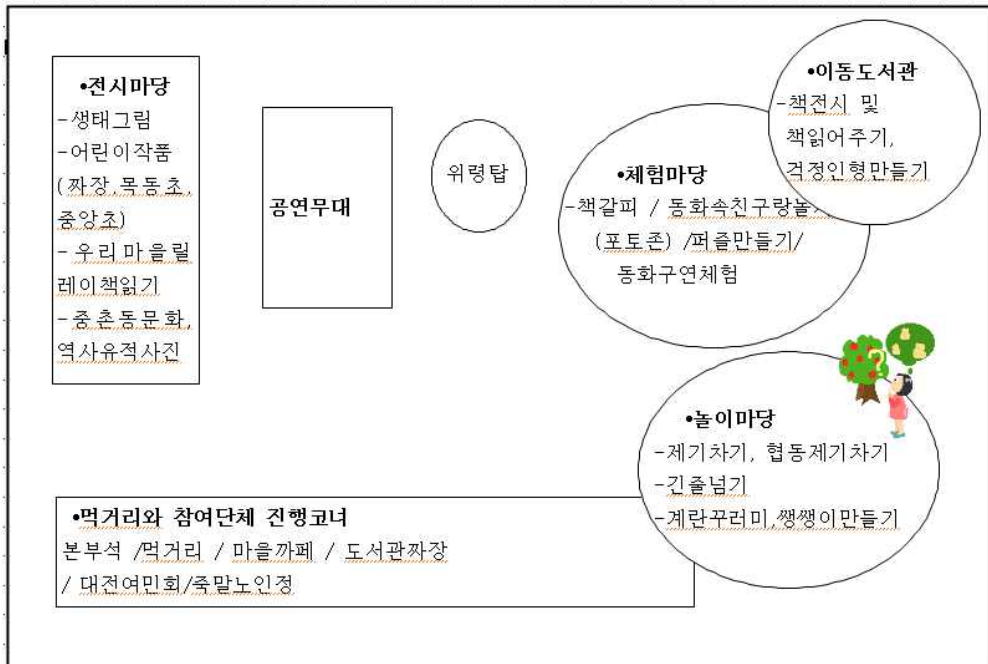
공공기관인 대전광역시는 매년 일정 정도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초기 공간을 마련하는데 지원하였는데, 후에 대전지역에 마을어린이도서관이 생기는 데 필요한 가장 큰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공공기관이 기여한 바는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도 대전시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어린이도서관을 비롯한 공동체 발전 지원 사업에 관심있는 시민과의 연계는 보다 더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중촌마을어린이도서관 짜장은 종일 운영하면서, 6,500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지역 어린이들에게 책 읽을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 회원 가입자 수는 1,500여명이며, 후원을 하고 있는 회원도 140여명에 이르고 있다. 어린이도서관이 지역공동체운동의 성격을 띠는 것은, 마을어린이도서관을 통한 다양한 소모임 활동이다. 도서관 안에서 책을 읽는 것에서 나아가, 마을을 탐방하고, 타지역에 문화유산을 체험학습하며, 악기를 배우고, 다른 마을을 견학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마을어린이도서관은 어른들의 평생학습공간이기도 하다. 여성들은 어린이도서관을 중심으로 육아를 위한 교육을 받기도 하고, 식품과 요리, 교육, 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전문가로부터 또는 또래로부터 매을 기회를 갖는다.

또한, 마을어린이도서관은 마을 주민 전체에게 문화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있다. 중촌마을문화축제는 마을주민과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서, 중촌마을문화축제 추진위원회를 다양한 연령과 계층 활동가들로 구성하여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 진행하고 있어, 지역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소속감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14] 2010중촌마을문화축제 행사 배치도



출처: [2010 중촌마을문화축제“동네사람들~~우리 함께 놀아요!”]프로그램 안내

2010년 중촌마을어린이도서관을 중심으로 개최된 <중촌마을문화축제“동네사람들~~우리 함께 놀아요!”>프로그램을 보면, 이러한 어린이도서관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놀이와 체험을 통해서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다양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이해할 수 있는 장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촌마을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만을 위한 활동에서 확장되어 주민과 마을 전체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사업을 전개해 왔다. 지역의원과 주민들이 만나는 간담회의 개최나 주문들이 중촌동에 살면서 느낀 불편한 점과 바라는 점을 직접 설문조사하는 일도 실시하였다. 공동체 구성원이 같은 지역에 함께 살면서 재능과 시간을 나누고, 자신이 생산한 물건을 나누는 것은 이러한 어린이도서관이 앞으로 지역 공동체의 연대성 형성과 지역 정체성 확립, 그리고 지역 중심의 경제와 자치활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생협·한살림운동

한살림생협운동은 1886년 원주에서 농민운동을 하던 활동가들이 서울에 ‘한살림 농산’을 개업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농업과 농촌은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도시의 소비자들은 잔류 농약과 저질 수입농산물이 아닌, 믿고 먹을 수 있는 국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던 시기였다. 한살림공동체소비자협동조합의 형태로 시작된 한살림생협운동은 생산지를 찾아가 농민들이 어떻게 농산물을 키우는지 직접 보고 거기에 대한 신뢰를 쌓아갔으며,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도시의 소비자들은 농촌의 생산물을 직접 받아 소비하였다. 농촌지역에서도 이 운동을 통하여, 각종 공동체 축제를 개최하여 농촌지역 특유의 공동체문화를 복원하는 계기로 삼았다.

한살림운동이 지닌 가치관은 단순한 농촌과 도시소비자 간 직접거래의 내용만을 담고 있지 않다. 이 운동은 소비자운동이면서, 동시에 농민운동의 성격을 띠었고, 무엇보다도 생명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생태질서에 맞는 식량의 생산과 소비는 기존에 우리사회가 지향해왔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가치관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었다. 계절과 (한국이라는 땅의) 지역의 특색, 자연의 원칙을 거스르지 않는 생산은 과하게 풍요로운 후기산업자본주의식 대량생산과는 대치되는 것이기도 했다. 절제와 순환, 오염을 줄이는 생활은 자연스럽게 재활용과 합성세제를 쓰지 않는 생활 속 환경운동과 연계되었으며,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관은 평화운동, 인권운동과 연계되었다.

1990년대는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이 확산되면서 한살림생협운동이 전국의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밀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우리 농산물 소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확산되면서 한살림생협운동은 전국 19개 지역 조직과 한살림생산자연합회를 갖추게 된다. 연구모임과 연구소, 유기농법에 대한 인식 확산에 한살림생협운동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1995년에는 여성신문이 제정한 ‘소비자가 주는 좋은 상품상’도 수상하게 되었다.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운동으로 사회적 이목을 확보한 한살림생협운동은 농촌의 살림과 도시의 소비자를 연결한다는 기본적인 취지와 함께, 지역의 공동체성을 복

원하는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각 지역에서 공부모임과 분과모임을 통해 농업문제, 환경문제, 그리고 생명과 생태주의적 관점에 대한 공감대 이루어지고 있고, 단순히 농촌의 물건을 받는 입장에 머물지 않고 도시 주민들이 생산자인 농촌지역 주민들을 찾아가 일손도 돕고, 단오와 가을걷이 축제를 즐기기도 하며, 생태탐사를 하는 등 좀 더 강한 공동체적 유대를 형성하고 있다. 2009년에는 회원이 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회원의 가입과 물품 공급량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래 도시사회와 농촌을 연결하는 새로운 공동체 운동의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대전의 한살림생협운동은 1997년 청주에서 분화되어 나온 대전 한살림점의 개소에서 시작되었다. 농산물을 소비하기 위한 지점이 차츰 늘어나면서 한 살림대전생협을 독립적으로 창립하기 위한 준비모임이 1999년에 결성되었다. 2001년 창립한 한살림대전생협은 건강강좌와 여름생명학교, 소비자 생산자 간담회 개최를 비롯하여, 환경운동단체와의 연계 활동 등을 통한 영역의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그림 15] 한살림대전생협의 조직 구성도



출처: 한살림대전생협 홈페이지(<http://dj.hansalim.or.kr>)

위 한살림대전생협의 조직 구성도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한살림생협운동은 조합원이 주체가 된 모임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마을모임은 동네의 조합원들이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조합의 기초단위로, 이 모임을 통하여 참여자, 활동가들은 한살림생협의 소식을 공유하고, 물품을 시식하거나 사용하며, 각종 행사나 강좌, 교육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무엇보다도, 이 모임을 통하여 한살림운동이 지닌 생태주의와 생명의 가치, 지역 먹거리 소비를 통한 농촌과 도시의 공생방안 모색,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의 증대 등이 이루어져, 단순한 소비의 모임이 아닌, 지역 사회와 공동체의 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모임으로 성장할 근거가 마련된다.

5. 풀뿌리사람들

‘풀뿌리사람들’은 2008년 8월에 창립되고, 2009년에는 풀뿌리시민센터를 개관하였지만, 이 창립의 기원은 2005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시도한 ‘마을어린이도서관’만들기 사업과 2007년의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 만들기 반딧불사업단’활동이라 할 수 있다(김제선, 2011). 어린이도서관 만들기가 지역 주민들, 특히 그 필요성에 강하게 공감했던 여성들에 의해 시작되고, 어린이도서관을 거점으로 마을공동체 내 주민 간 교류의 활성화와 공동체성 강화가 성공을 거두면서, 이러한 성공을 발판으로 한 새로운 시도들이 모색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생활에서 실천하고자 한 풀뿌리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사)풀뿌리사람들은 일상생활의 문제와 마을에서 경험하는 일들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고, 지역 내 일터인 직장과 삶의 터전인 마을에서 시민들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스스로 대안을 찾아 행동할 수 있는 기회와 지원을 큰 목적으로 한다.

풀뿌리사람들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역량을 분화 발전시켜, 참여자치시민연대의 분화 활동 중 지역을 중심으로 한 풀뿌리시민운동활동에 주력하였는데, 마을어린이도서관 만들기과 같은 풀뿌리조직 및 지원조직의 설립 등이 처음 시작된 주력 사업이었다(김제선, 2011).

<표 7>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 개황

이름	공익적시민활동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
영문 이름	The Grassroots-Community Desiners & Builders
설립일	2008년 8월 25일
소재지	301-803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248-271 풀뿌리시민센터 2층
법인격	사단법인, 대전광역시 승인 제190호(2008.9.15, 대표자 송인준)
부설기관	공익문고 풀뿌리아카이브
사업단	풀뿌리청년사회적기업가양성센터(중구 선화동 대제빌딩) 풀뿌리마을기업지원센터(중구 선화동 창성빌딩) 풀뿌리대전형사회적기업지원센터(풀뿌리시민센터 내)
집중지원단체	품앗이시장 착한쇼핑몰(사회적경제 전문 유통), 디모스(퍼실리테이션 보급), 청춘살롱(청년협동조합 추진)
연대조직	한국시민센터협의회, 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협력단체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교육위원회, 대전시민사회연구소
회원	이사장 송인준 외 28명, 등록 회원 182명
실무자	총 13인(인턴2인)(풀뿌리지원팀3인, 청년창업팀3인(인턴1인),대전형SE팀 3인, 마을기업팀2인(인턴1인))

출처: 김제선(2011)에서 부분 인용.

마을어린이도서관 만들기 사업은 풀뿌리사람들의 모태라 할 수 있는 참여자치시민연대의 중요한 사업이었다. 지역주민과 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리고 주민들이 지역과 공동체의 문제를 보다 더 가까이 체감할 수 있는 기회로 마을어린이도서관사업이 논의되었고, 실제 성공적이었다. 마을어린이도서관을 만드는 과정에 주부, 노인, 어린이, 자영업자 등 기존의 시민운동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계층이 참여하였으며, 주부계층은 핵심 리더가 되어 지역의 어린이와 노인들, 상인들을 결속하는 힘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을어린이도서관은 교육과 보육, 안전 및 생활의 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인 여성, 주부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문제를

진단하고 자력으로 해결해나가는 품앗이형 공동체 조직의 거점으로 활용되었다. 풀뿌리사람들은 이 과정을 겪으면서, 지역 주민, 특히 여성, 주부들의 자발적 조직화와 실천을 중심으로 한 독립적 활동의 성공과 그 중요성을 인식했으며, 실질적인 생활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교육·문화 활동 욕구에 기초하여 '마을사업' 또는 '동네 일'을 확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인지 알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시민운동단체 및 정치운동단체의 운영 관행에서 벗어나, 유연한 열린 네트워크방식의 협력의 중요성과 개인의 재능을 기부하고 시간을 헌신하는 데서 출발하는 품앗이 협동을 통해서 참여자들이 개인적으로도 성숙하고, 지역공동체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을어린이사업의 성공 경험의 의의로 파악하였다.

풀뿌리사람들은 마을어린이도서관 만들기 사업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시민운동에 주목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러한 운동을 다른 영역에도 확산하고 전문적인 중간자로서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풀뿌리사람들은 '행복한 참여 공동체형성,' '지속 가능한 자립적 운영 기반 구축,' '따뜻한 지원사업 추진,' '활동가의 발굴과 성장,' '공익적 시민활동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확산,' '나눔과 협동의 사회적 경제운동의 확산'이라는 여섯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각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다.

<표 8> 풀뿌리사람들 목적별 사업 목록

목적	세부 활동
1. 행복한 참여 공동체 형성	1-1. 모든 사업 기획과정에 회원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1-2. 각종 사업 인터넷 사후보고 강화 및 사전 인터넷 의견 조사 실시 1-3. 1 임직원 1주제 강의, 컨설팅 역량 구축을 통한 참여적 조직운영 1-4. 사회적 활동성과 측정 제도의 도입과 사업별 이사 참여제 도입, 운영 1-5. 회원이 참여하는 월례강좌 ‘행복한 대안적인 삶을 찾아서’ 개최 1-6. 활동성과를 나누는 기부자네트워킹파티의 정기적 개최
2. 지속가능한 자립적 운영 기반 확충	2-1. 정기기부회원의 확대(400 CMS회원 확장 운동) 2-2.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사회적 회계의 도입 2-3. 상근자의 확충과 주민조직 및 비영리경영컨설팅 역량 등 전문성 제고 2-4. 연구, 교육 용역의 적정 수주와 질 높은 사업 추진(마을기업지원기관, 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 유성구작은도서관설립, 청년창업보육센터 등) 2-5. 지역재단설립을 위한 수요조사와 설립방안 연구
3. 따듯한 지원 사업의 추진	3-1. 수요자 중심의 지원사업 모델의 개발과 시행 3-2. 모두에게 따듯하고 편안한 시민센터 공간 운영 3-3. 풀뿌리사람들 공익기금 개발 방안 조사 및 시범 모금 사업 추진 3-4. 파트너를 찾아가는 현장 지원(풀뿌리단체 탐방보고서 발간 추진) 3-5. 공익활동의 정보 나눔터 NPO뉴스온의 정기적 발행 3-6. 풀뿌리단체 창업보육공간 운영의 안정화와 실질 지원 확대
4. 활동가의 발굴과 성장	4-1. 풀뿌리단체조직활동가 양성과정 운영 4-2. 사회적경제 활동가 양성과정 운영 4-3. 퍼실리테이션 보급 및 사회적기업 창업지원(대안적교육활동) 4-4. 마을협동조합 활동가의 발굴, 훈련
5. 공익적 시민활동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확산	5-1. 비영리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균형성과평가전략 및 사회적회계보급 5-2. 비영리경영컨설팅의 정례화 및 비영리경영컨퍼런스의 개최 5-3. 공익적 시민활동 활성화 배분 사업 추진 5-4. 도시농업, 로컬푸드운동의 활성화 지원 5-5. 풀뿌리정치참여 촉진을 위한 체인지컨퍼런스 등의 공동주최 5-6. 공익적 시민활동 지원 스마트폰앱 개발 공모 및 지원 5-7. 품앗이사회학교의 독립 사회적기업 보육과 품앗이교육활동 확산 5-8. 공익적 시민활동 지원기관 간의 연대와 협력 강화
6. 나눔과 협동의 사회적경제운동 확산	6-1. 커뮤니티비즈니스 창업보육지원 6-2. 청년쇼셜벤처창업보육지원 6-3. 마을협동조합모델의 개발과 활동가 양성 6-4. 착한쇼핑몰 품앗이시장 보육 지원 6-5. 순환과 공생의 지역발전 담론의 확산 6-6. 대전지역 사회적경제 자원과 모델 연구 조사 6-7. 사회적경제 공동기금 개발 방안 모색 6-8. 사회적경제운동 주체들간의 연대와 협력 활성화(전국 지역화폐활동가 대회, 전국 사회적경제운동활동가대회 모색)

풀뿌리사람들은 지역주민들의 학습모임인 '오만상상포럼'을 비롯한 청년포럼과 주민학습모임을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소외계층 아동의 여가와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풀뿌리사람들의 가장 눈에 띄는 활동영역은 창업과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 활동이다. 비영리CEO스쿨, 마을품앗이은행, 청년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착한쇼핑몰 품앗이시장, 풀뿌리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마을기업지원 등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지역 밀착형 기업과 사업 육성, 소자본으로 지역 내에서 시작할 수 있는 창업, 생활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형태의 창의적 창업 등을 지원하는 풀뿌리사람들의 운영 방식을 볼 수 있는 사례이다. 또한, 사회적경제활동가를 양성하고, 각종 학습 모임, 정보 교류를 위한 세미나 포럼의 개최, 컨설팅 등은 이들이 지닌 전문가적 중간자 역할을 볼 수 있는 예이다.

제 4 장

대전지역 여성중심 지역공동체운동의 참여 경험 단계별 분석

제1절 지역공동체운동 여성활동가의 참여 동기 및 특성

제2절 지역공동체운동 활동의 심화와 발전

제3절 여성중심 지역공동체운동 활성화의 과제

제4장 대전지역 여성중심 지역공동체운동의 참여 경험 단계별 분석

대전지역 여성들이 마을어린이도서관, 풀뿌리사람들, 한살림생협운동, 여성민우회의 풀뿌리운동센터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운동에 참여하게 된 이유와 그 지속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요구와 사회적 차원에서의 여건 형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중산층 여성들의 지역운동참여경험 연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변화하면서 요청된, 사회구조적으로 형성된 지역공동체운동의 발생 여건과 함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개인의 경험과 관심이었다(김종미, 2004).

이 장에서는 대전지역공동체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을 직접 만나보고, 이들이 어떻게 개인의 일에서 확대된 지역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으며, 그들이 참여한 지역공동체운동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들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긍정적 효과를 지닌 지역공동체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이 여성활동가들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제1절 지역공동체운동 여성활동가의 참여 동기 및 특성

1. 자기 발전과 돌봄, 치유의 기회

마을어린이도서관, 풀뿌리사람들, 한살림생협운동, 여성민우회의 풀뿌리운동센터 등에 참여해 오고 있는 여성활동가들의 대부분은 이 활동 전 다른 업종에 종사하거나, 직업을 가졌던 경험

보다는 주부로 생활해 오던 경우가 많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시민운동에 관심이 있어 지역공동체운동 활동에 참여한 경우도 있었으나, 여성 활동가들의 많은 경우

가 주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부로 생활해오던 여성활동가들은 가족과 가사에만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 외,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지적인 성향이 강하고, 자기 발전에 대한 욕구가 많은 사람들임을 알 수 있었다.

정말로 내가 원하는 삶이란 게 뭐냐? 이런 걸 다시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내가 이제 자유로워 지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속박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 지는 거고. 둘째는, 그런 걸 통해서, “아! 내가 이제, 내가 다르게 살면서, 다른 세상들이 같이 좀 변화하길 바란다.” 이런 욕구였던 거 같아요.

[사례 1]

현대 산업 사회의 여러 특징 중 하나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활발한 경제 및 사회활동참여이다.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은 여성에게도 개인적으로 사회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성공하고 성취감을 경험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남녀의 동등한 권리를 지향하는 가치관이 크게 확산되었다. 고유한 주부 역할의 중요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고, 경제적인 이유로 많은 여성들이 주부 이후의 경제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이고 있는 것도 한 경향이다. 육아와 양육에 대한 주부들의 심리적 부담도 적지 않은데, 가사노동의 중요성은 감소하면서, 경제활동 및 육아와 교육은 크게 강조되는, 여성들의 성역할 내용에 큰 변화가 온 시기이기도 하다.

[사례 1]은 사적인 영역에 머무는 여성들, 특히 높은 교육 수준을 지닌 중산층 여성들의 지적 욕구와 자기 계발 욕구, 그리고 이를 통한 어떤 성취감의 실현에 대한 욕구를 보여주고 있다.

참여해서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특히 전업주부로 있는 분들은 (더 그렇죠). 물론, 한편으로는 자기 가족에게만 매몰된 사람도 있지만, 그런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례 2]

생명학교 가면서도 정말 이제, 저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도서관에서 활동하고, 동화 읽는 어른모임에서 활동하고, 여기 와서 활동을 하는데, (그냥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어느 정도 아이들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더 느끼면서, '아 정말 나도 열심히 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례 3]

[사례 3]은 단순한 자원 활동가로서의 보람뿐 아니라, 보다 깊이 있는 지식의 습득과 그로 인한 전문성 확보에 대한 욕구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이 개인의 발전과 성취, 이를 통한 심리적인 긍정적 자아존중감 획득과 연관이 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조로운 가사일에서 성취감이나 정신적 보상을 경험할 수 없다는 생각은 “속박감”이나 소외감 혹은, 좌절감으로 연결될 수 있는 데, 이러한 부정적인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적인 영역의 일, 지역 공동체운동활동이 의미 있게 된다. [사례 1]은 자신을 통해 사회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사례 2]는 경제적 욕구보다는 “보람”을 우선하고자 하는 경향이 주부들 사이에서 적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 사적이고 개인적인 욕구의 해소가 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2. 삶에 근거한 변화에의 욕구

여성들, 특히 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에 주로 머무는 여성들은 간혀 있는 듯이 보이지만, 달리 생각하면, 다양한 삶의 영역들과 밀접하게 만나는 사람들이고, 삶과 밀접하게 만나면서 경험하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사람들이기도 하다(윤나래, 2010).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운동에 참여하는 여성활동가들은 이러한 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요청에 의한 것, 즉 일상생활과 삶에 밀접하게 있어서 느껴진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시작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집에만 꼭 쳐 박혀있었어요. 애를 데리고 어디 나간다는 상상을 못 한거예요. (웃음) 그렇게 있다가, 애가 이제 크면서 책을 자꾸 보게 되니까, 집안에 있던 책으로는 이제 역부족이 되다보니, 도서관을 찾아야 했고, 도서관을 찾다보니까, 집 앞에, 바로 걸어서 5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에 어린이도서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죠. 특히 어린이도서관이라, 그림책이기 때문에 읽을 나이였는데, 그림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분위기도 자유롭고. 그래서 한 3~4개월 다니다 보니까, 어린이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이 사서 자원활동을 권유를 해주셨어요.

[사례 4]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사례 4]는 육아를 하다가 경험한 필요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아이에게 보다 많은 책을 읽히고 싶다는 매우 개인적인 이유에서 출발하여 마을어린이도서관을 방문한 이 사례는, 어린이도서관의 분위기가 좋아서 계속 다니게 되었고, 그 곳에서 일하는 다른 여성들을 만나게 되었으며, 곧 자원활동가 활동을 권유 받게 되었다.

공공교육기관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교육의 가치와 방법을 실현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데서 또다른 지역 중심의 공동체운동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 대안학교도, 다 엄마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필요를 느낀 엄마들이죠. 참여한 엄마들이, 가족들이 출자를 했고, 또 그 안에서 선생님도, 엄마가 실제로 아이들 케어하고 그리고 또 프로그램 기획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사례 5]

[사례 5]에 나타난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엄마들’은 개인적인 필요, 대롭고 다른 교육에 대한 욕구에서 출발하여 대안학교를 만들고,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 여성들은, 공교육이 해소해주지 못하는 교육의 다른 영역과 역할을 해줄 교육 공동체를 마을을 중심으로 하여 자생적으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공동체운동이 전개되는 물리적 장, 공간은 참여하는 여성들에게는 새로운 사람

들과의 만남의 장이고, 정보 교류의 장이며, 휴식을 위한 공간이 되기도 한다.

(공공도서관에서는) 이렇게 말만해도 췌, 이렇게 해야되고. 애들은 솔직히 자유분방하잖아요. '조용히 앉아있어!' 그러면 5분도 못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 도서관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돌아다녀도, 어린이 도서관이니깐, 정말 제재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유로운 분위기니까, 애들이 오래 머물러도 재미있어 하고. 다음에 또 가자고 그러고. 거기는 주변의 또래 친구들도 와서 놀고, 그래서 되게 자유로웠던거 같아요.

[사례 6]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면 엄마들은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다른 엄마들과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마을어린이도서관은 여성들에게 우선 편안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다가 오고 있으며, 이러한 쉼 가운데 여성들은 여유를 가지고 다른 이야기들이나 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한 일주일에 두 번 물건 배송이 오거든요,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배송담당하시는 분들도 너무 좋은거예요. 그니깐 물건만 던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한살림에 이리이러한 행사가 있으니까 오세요.' 라고 해서, 하다보니깐 행사 참여도 하게 되고. 그때는 애들이 어렸어요, 많이. 처음 이용할 때 집에서 물품 이용만하는 수준이었어요. 애들이 좀 크면서 생산지 방문이라든가 (다른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런게 꽤 많아요. 예를들어, 가을걷이 한마당도 있고, 단오행사 있고, 생산지 방문, 밤 따라 가기, 사과 따러가기, 딸기 따러가기, 뭐 이런 식로 행사가 많거든요. 애들이 그런 행사 좋아하고 하면서...

[사례 7]

아이들에게 좋은 농산물을 먹고 싶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조합이 마련한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행사들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례 7]의 이야기는, 가사와 육아/교육, 생활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한 욕구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운동에 참여한 계기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2절 지역공동체운동 활동의 심화와 발전

1. 인식의 공감과 공유 경험

핵가족이 일반화된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은 각자 가정에서 주어진 아내와 주부로서의 역할을 대부분 이른바 ‘동료’없이 홀로 수행한다. 홀로 일을 하게 되는 특성상 이러한 여성들은 자신의 일이나, 고민, 그리고 감정을 나눌 누군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윤나래, 2010), 새로운 정보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마을어린이도서관, 생협운동, 풀뿌리운동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운동 참여 여성들은, 참여 초기엔 개인적인 이유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이유를 ‘사람’과 ‘관계’에서 찾는다. 이른바 ‘생각이 같은 사람’ 혹은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기쁨과 소중함을 경험하면서, 여성들은 공동체운동의 중요성도 더욱 강하게 깨닫게 된다.

내 삶이 좀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하고 얘기를 해도, 도서관에서 얘기하는 거랑 벤치에 앉아서 얘기하는 거랑 주제가 좀 틀린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도서관에 오면 일단은, 시댁얘기 안하고 (웃음) 교육 얘기 주로하고...

[사례 8]

부모교육이라든가, 그런 때, 뭐 공부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분들은, 저희가 초대 하지 않잖아요? 애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즐겁게, 애가 행복하게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런 거 많이 들어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애들을 학원이나 막 이런데 얹매이게 그렇게 키우진 않거든요. (같이 활동을 하는)엄마들이 그런데서 위로를 받죠, 너무나도.

[사례 9]

가정생활에만 국한된 주제로 이루어진 대화에서 탈피해서 무언가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여성들의 욕구는 이러한 지역공동체운동에 참여하면서 많이 해소된다. 위 [사례 8]은 남편과 시댁의 얘기에 국한되기 일쑤인 여성들의 대화가

마을어린이도서관에서 활동하는 동안에는 교육과 지역공동체 등 보다 확대되고 다양해진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사례 9]는 사교육에 아이들의 교육을 맡겨버리고, 사교육비를 감당하기 위해 파트타임 일자리를 전전하며, 아파트 평수와 예금 잔고 늘이는 일에 몰두하는 또래의 많은 여성들과는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자신이 외로워지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로 공동체운동에서 만난 여성활동가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자기 아이에게만 집중하는 이기적인 엄마들이 많죠. 많기는 한데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그런 분들끼리 모여더라고요. 저희처럼 (아이들) 놀리면서 책을 읽히겠다는 부류가 또 있잖아요. 이렇게 뭉치더라고요. 갈라지는 거 같아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막, 아이들을 놀리고 있는 거죠. (웃음) 놀아본 놈들이 뭔가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놀리는 편이에요.

[사례 10]

생각이 같은 사람들,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과 모임을 통한 협력의 [사례 10]과 같은 경험은 ‘동지’ 혹은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게 되는데, 보통의 다른 여성들과는 다른 지향과 가치관 그리고 욕구가 있다는 것이 소외감을 만들어내지 않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남으로 해서 그 활동의 깊이가 더해진다는 경험을 하게 된다.

지역공동체운동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지향하는 가치를 공감하는 과정, 더 깊게 공감하고 공유하는 과정이 활동가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깊숙이 운동에 참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단순히 마을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고, 생협이 물건을 소비하며, 운동단체의 카페를 이용하는 데서 나아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역공동체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이유는, 자신이 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세계와 가치 그리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스스로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굉장히 내성적이다' 또는 적극적으로 '이런 거 왜 해?' 회의하러 오라고 하면 '아우, 싫어.'라든가, '그런 거 머리 아파' '교육도 안 받아'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활동으로 한 발자국 내딛어서, 활동을 시작하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자기가 보지 못하던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활동이 조금씩 넓어지는 거죠. 자기 자신이 새롭게 깨이고, 좋드라구요.

[사례 11]

[사례 11]은 학자의 말이나, 훌륭한 책들, 또는 전문가의 지식 때문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스스로 변화하는 것을 느끼면서 가지게 된 독특한 심리적 경험을 이야기 한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지식을 습득하여 간접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삶에서 활동을 통해 부딪히며 얻은 깨달음은 바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는 원동력이 되며, 그 자체로도 개인에겐 매우 의미가 있다.

그 엄마들이 활동에 매진하면서 바빠지는 거죠, 여기 회의도 나와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게 보기가 좋은 거예요. (남편이) 열정적으로 살라고 했는데, 자기 와이프가 너무 열정적으로 사니까, 그런 거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거죠. 우리 와이프가 어느 정도 활동을 하는 거구나, 싫어서 굉장히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다른 활동하는 엄마를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 스스로도 많이 변했구요.

[사례 12]

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된 지역공동체운동의 참여는 활동가 개인에게는 스스로의 자존감을 고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사례 12]는 여성들이, 특히 사적인 영역에만 주로 머물던 여성들이 사회적 운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을 재조직화 하게 되고, 타인들로부터도 사회적 인정을 받게 되면서 자기 존중감을 높이는 것이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여성활동가가 중심이 된 지역공동체운동의 많은 경우가 조직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거나, 오랜 시간에 걸쳐 운영 매뉴얼이 확립되어 있다거나, 활동 영역과 범위가 잘 짜여져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생활에서 직접 발생된 필요와 욕구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체계적 조직보다는 개인 간 관계에 의존하여 지속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를 공감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해결하며,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지역공동체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2. 관계 맺기의 확장

개인 여성활동가 차원에서 보다 깊이 지역공동체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함께하는 동료 집단이 있기 때문이며, 이들과의 강한 감정적 연대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웃 엄마들, 정말 스스럼없이 나이 들어서 사람 사귀기 되게 힘들잖아요? 정말 마음 터놓고 사귀는 게 힘든데, 그런 공간이 있으므로 해서 가능해요. 30년 이상 모르고 산 사람들이 데도, (어린이도서관에) 가서 스스럼없이 친해지고, 그 다음에 뭐, 집안에 일 있으면 같이 의논도 하고, 육아에 대해서 의논도 많이 하고요. 학교에 대한 교육정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를 해주고, 같이 얘기를 해서, 올바른, 뭐 정답은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아이를 위한, 아이를 가장 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랄 수 있게 많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례 13]

여성중심적인 지역공동체운동은 성공적인 사적인 관계맺기와, 이 성공적인 관계맺기가 운동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상당한 부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사례 13]은 사적으로 친해지면서 여성활동가들 간 더욱 많은 교류와 정보의 교환이 일어나게 되고, 이를 통해 운동이 즐겁게 지속되는 경험을 보여주고 있다.

성공적인 관계맺기는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획득이자 구성이 된다.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여성들이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자원’이 되기도 한다.

적게 벌어서 적게 사는 그런, 방식. 뭐 벼룩시장에서 다 조달하고요. 예를 들어, 위 아랫집 언니들한테 아이의 옷도 물려받고. 그리고, 육아경험은 또 많은 회원분들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자원들이 네트워킹이 돼서, 이게 공적인 영역에서, 운동영역에서만 풀어지게 아니고, 사적인 영역까지도, 이제는 아이를 키우면서 느껴지는 거 같아요.

[사례 14]

[사례 14]는 사회적 관계를 이용하여 실제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가치 있는 자원들을 획득하고, 이를 통하여 기존의 관계들이 더욱 공고해지고 협력이 강화되며, 신뢰가 쌓이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실질적 자원이 획득되는 사회적 자본 형성의 경험은 가치의 공유를 통한 집합 행동의 동기를 더욱 강화시킨다.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에 같은 주제를 두고 함께 고민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고민과 대화를 통하여 해결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함께 고민했기 때문에,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안되며, 따라서 동네 혹은 마을, 또는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제안들과 행동들이 실행될 수 있다.

여성활동가들에게 있어 운동 집단 안에서의 관계맺기는 활동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이유를 제공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신랑은 더 동네에 못 어울리는 사람이예요. 정말 (집에서) 하숙하고 나가는 사람이고, 저는 그나마 아이가 있기 때문에, 동네 엄마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게 되죠. (활동가인) 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언니들의 필요라든지, 언니들의 욕구라든지, 아니면 정말 이 마을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듣고 알게 되죠.

[사례 15]

[사례 15]는 남성(남편)과 달리, 지역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하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지역공동체운동에 필요한 인력과 활동의 지속을 위한 목적의식 그리고 심리적 지원을 얻고 있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느낌, 활동가로서 다른 여성들의 요구를 듣고 활동에 반영하여 얻어지는 결과물의 공유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그래서 기쁘고 보람 있다는 심리적인 보상물을 생산한다.

지역공동체운동 활동 가운데 중요하게 드러나는 지지그룹의 역할은 활동가 개인의 장점을 파악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운동을 지속시키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저사람이 하겠지, 하면 안되더라구요. 그런 마음이 맞는 집, 한 두 집이라도, 저 사람이라도, 짹짹이 되어가지고, 계속 만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만나가고, 함께 고민 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 갖다보면, 조금 더 넓어지고, 넓혀지죠. 무조건 '이거 할 꺼니까 모이자!' 하면 안되더라구요. '우리 이 아이들 데리고 뭐 할래? 뭐하지? 우리, 책읽기 할까? 뭐 만들기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그 관계들을 계속 유지 하다보면, '아! 이게 필요하겠다' 라는 의견이 나오죠. 활동 반경도 넓어지고.....그런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공감대 형성들을 주위에서 계속 만들어주는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뭔가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 분들이 같이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례 16]

여성활동가들의 역량강화(empowerment)는 관계 속에서 획득한 자존감의 상승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짹'이라 생각될 만큼 가까워지고, 이들과 같은 문제를 고민하며, 자연스럽게 새로운 활동을 전개해나가는 것은 [사례 16]에서 보여지듯이, 마음을 맞추는 일에서 시작하여 배려하면서 권유하고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례 16]는 강요하는 운동 방식이나, 전문지식으로 다른 여성들을 압도하는 일, 특정한 방향이 옳다는 주장을 펴는 것보다는 친구가 되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보살피주며, 새로운 활동을 '함께하면 어떨겠냐'고 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성중심의 공동체운동에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합리적인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새로운 자원 획득의 경로이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지지와 지원의 맥락을 더욱 강하게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하는 사람이 너무 좋은데, 내가 이해는 안되지만, 이 사람이 하는 일을 좀 돕고는 싶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일하는데, 되게 힘들어 보여요. 그러면, 나는 '아, 오지랄 이렇게 넓혀까지 일을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 사람이 힘들니까, 같이 이제 호응을 좀 해주는 거예요. 도와준다, 도움을 준다고 해야되나? 일을 좀 덜어준다고 해야되나? 그런 식으로 계속...

[사례 17]

자신에게 돌아올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으로서의 네트워킹과 사회적 자본 형성이라기 보다는, 자신이 감정적으로 받았던 지원과 돌봄을 되돌려주거나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서의 공동체운동 참여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운동일수록 생활공간을 함께하는 구성원들에게는 이러한 정서적

교감과 교환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공동체운동을 통해서 이윤이나 이득을 남기는 것보다는 '사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면접자들의 의견이 많았으며, 이는 지역공동체운동이 활성화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높은 수준의 동료애와 정서적 교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근거가 된다.

3. 개인에서 지역으로의 공동체성 형성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운동에 참여하는 여성활동가들은 자신을 둘러싼 관계를 성찰하고, 활동을 통하여 자존감을 제고하며, 관계를 통하여 운동의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좋은 공동체,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생활의 문제에서 시작한 여성활동가들은 우선, 생활적인 측면에서 강해지는 공동체성의 강화를 가장 먼저 반가워한다.

저 같은 경우도 아이를 혼자 키워서 이렇게 사회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많았는데, 도서관에 가면 오빠도 있고, 형, 누나,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고 그렇죠. 형제는 아니지만, 형제처럼 그런 모든 관계를 거기서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동인데 그다지 외동 같지 않게, (웃음) 좀 덜 외롭게 클 수 있죠. 그것이 혜택이라면 굉장히 큰 혜택 같아요. 어른들하고 주변에 이웃집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애들이 어른들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고요. 예의범절도 좀 배울 수 있고, 다양한 연령대를 만날 수 있고요.

[사례 18]

'한 아이를 마을 전체가 함께 키운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지역공동체운동 여성활동가들은 육아에 있어 공동체가 해 줄 수 있는 일이 무척 많다는 것을, 공동체로부터 개인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CC TV를 골목 곳곳에 설치하여 아이들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보다, 이웃 사람들 모두가 그 아이의 움직임을 보고, 말을 걸어주고,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참견하는 것이 이들이 강조한 공동체가 지닌 안전망이었고, 공동육아이기도 하였다.

육아와 먹거리에 대한 관심,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관심은 지역공동체

운동을 하면서 보다 넓어지고, 지역사회로 확장된다.

한살림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던 거 같아요. 그냥 내가 생각했던 소비 중심이 아닌, 생산자분들의 입장에서 같이 먹거리를 고민하게 되고, 아이들 교육을 같이 고민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 정말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한살림보다는 더 큰, 더 깊은, 그런 게 보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사례 19]

[사례 19]은 생협운동의 목적과 활동에서 확장된 생각들이 깊어지면서 보람있고 기뻐했다고 구술하고 있다. 여성활동가들은 지역공동체활동을 통해서 이제까지 협소하게 머물던 자신의 생각이 확장되고, 생각으로만 존재했던 바람들을 직접 몸으로 실천해보는 기회를 접하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이야기 하였다.

저는 행복하구요, 여성운동 중에서도 풀뿌리운동이 성과가 난 것이, 몇 년, 최소 5년 10년은 걸려요. 이렇게 한 사람이 변하고, 또 한 사람의 변화가 마을, 지역사회를 변화시키죠. 되게 더디 가고,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오랜시간이 걸리지만, 그러나 저는, 이것이 다른 영역의 운동과 연계해서 할 수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운동이 제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또한 시민사회를 튼튼하게 받쳐주는 그런 어떤 힘이 될 꺼다 그렇게 봐요.

[사례 20]

관계를 통하여 움직이는 여성중심의 지역공동체운동이 결국 지향하는 것은 시민사회를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생활의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사례 20]은 이야기 하고 있다.

신뢰가 오간다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물건을 교환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생산과 소비를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누가 만들었는지 알고, 내가 오늘 만든 과자를 누가 먹고 있는지 알고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실제로 공동체성이 회복된다고 믿는거죠.

[사례 21]

또한, [사례 21]는 사회적 경제를 지향하는 풀뿌리운동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공동체성의 복원임을 강조하고 있어, 여성중심의 지역공동체운동이 사고와 인식, 그리고 관계의 확대, 활동 영역의 확장으로 통하여 목표하고 있는 것은 공동체, 함께 사는 마을의 발전과 긍정적 변화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위와 같은 지역 여성활동가들의 공동체운동 관련한 경험을 통하여, 그들의 활동과정과 특성을 시기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6] 지역 공동체 운동 참여 여성 활동가의 활동 내용의 단계별 변화



제3절 여성중심 지역공동체운동 활성화의 과제

삶에서 비롯된 문제들을 개인적으로 해결하거나 일방적으로 관공서의 결정을 따르는 수동적인 구성원들과 달리, 생활의 문제들을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 하고, 이를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려는 집단적 움직임들이 여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물론,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진 여성중심의 지역운동들이 매우 높은 공공성과 대의를 확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 추모공원건설이나, 쓰레기소각장의 설치, 재건축용적률을 높이기 위한 집단행동들, 아파트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주민들의 자체 점검 활동 등은 사회적 대의라기 보다는 자신이 현재 소유한 자원을 지키거나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이익추구형 집합행동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지역의 여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운동들이 그 가치와 공공성, 사회적 대의를 확보하고 지켜나가기 위하여 자정적 노력과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성과 사회적 대의를 기본가치로 하고 있는 대전지역의 여성중심 지역공동체운동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들의 경험을 분석하여, 지역발전과의 연계와 활성화 방안을 고찰해 보고 있다. 심층 면접 조사에서 여성 활동가들은 지역공동체운동을 전개하고 활성화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 여성중심 지역공동체운동 전개의 어려움

지역공동체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활동가들은 운동을 전개하고 참여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첫째, 운동조직의 체계화, 공식화, 전문화 부족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둘째, 인적자원 발굴 및 경제적 자원의 부족으로 파악하고 있다. 세 번째 어려움으로는 운동조직 운영에 필요한 리더쉽 및 동료애의 형성이 지적되었으며, 네 번째로는 실질적 공간과 시설 인프라의 부족을 들고 있었다.

도서관 말고 다른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거야. 그러니까 도서관이 지속되려면. 도서관은 책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주축이 되게끔 해야죠. 그전에 전문가들이 조언했던 그런 성격을 좀 더 가져가게끔 하고, 나머지 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공간으로 옮겨서 분화하고 분리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봐요.

[사례 22]

[사례 22]는 직접 마을어린이도서관 사업을 진행해보면서 경험한 운동 조직 및 활동 영역의 전문성 확보를 이야기 하고 있다. 마을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와 부모, 특히 어머니와 아이와 책을 읽으며 함께하는 공간과 시간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어린이들이 책을 읽고 지역 내에서 다른 어린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기회를 얻는 것이 마을어린이도서관의 주요 활동이 되었고, 부수적인 축제 개최 등이 어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되었다. 어린이들을 도서관에 보내는 어른들은 도서관에서의 자원봉사 기회를 통해서 만남을 가지게 되고, 서로 생활에 근거한 문제들을 공감할 기회 역시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의식이 확장될 통로가 전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위 사례의 주장이었다.

마을어린이도서관에서 어른과 어린이의 욕구 모두를 해소할 수 없으며, 작은 단위의 조직과 활동이 그 영역을 확장해가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그 활동 영역을 분화하고 전문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화와 전문화 과정에 필요한 것이 조직이고, 그 조직의 체계화와 공식화 양상이다.

만약에 공공도서관이 프로라면 우리는 아마추어 정도죠. 그러니까 상근자가 있는 도서관하고 없는 도서관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프로그램이라던가... 너무 자원봉사로만 운영이 되니까, 자원봉사 자체도 지치고요, 솔직히. 봉사자 자체도 지치고 그리고, 책임져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만 있을 경우는.

[사례 23]

위 사례는 자원봉사자로만 운영되는 공동체운동 조직이 자율성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그 때문에 실질적 운영에 있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이야기 하고 있

다. 조직이 공식화되고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심점이 없고, 많은 경우 일방적으로 자원봉사자의 희생에만 기대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운영 프로그램 작성에 있어도 책임감을 지닌 상근인력이 없다는 것은 '아마추어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 있고, 보다 발전적인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이 부족할 수 있다.

'자원봉사'라는 애초의 개념은 이제 변형되었어요. 그래서 일정정도 활동을 하면, 자원봉사를 계속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빛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죠. 봉사도 경제적 보상을 바라는 현실이에요.

[사례 24]

조직 운영의 체계화는 조직의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집단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이다. 위 사례는 예전에 지역공동체운동에 순수한 자원봉사로만 참여했던 구성원들이 점점 경제적인 보상을 바라는 경향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와 경제활동참여를 바라고 있는 현실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변질'만을 현 공동체운동 활동의 걸림돌로 지적할 수만은 없다.

공동체운동을 통해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보람, 즉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을 강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고,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새로운 역할을 지닌 사회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근인력으로서의 변화 혹은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참여 여성들에게 적지 않은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직 운영의 체계화는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활동가를 모색하고 발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운동의 여성활동가들은 새로운 활동가를 발굴하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큰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기존 회원들의 역량강화가 더 필요한 상황인거죠. 왜냐하면 회원들의 역량강화 속에서 논의력을 형성하고, 그 논의력으로 우리 집단의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신입회원을 더 끌어들이 수 있죠. 신입회원이 지금 들어와도, 물론 지금 회비를 납부해 주시거나 그런 부분으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어떻게 여기서 더 의식화와 조직화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못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토대가 너무 약해서...

[사례 25]

공동체운동의 가치와 지향을 함께 이야기 하고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는 기존 활동가들의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사례 25]는 지적하고 있다. 어린이도서관 이든 생협운동이든 그 집합적인 가치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조직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면접에 참여한 활동가들은 함께하는 활동을 통하여 공동체운동의 취지와 가치 등을 경험했다고 했는데, 이는 기존의 활동가들이 오랜 시간을 통하여, 혹은 집중적인 활동과 숙고를 통하여 충분형성 된 가치와 목적을 엿보고 듣는 데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리더쉽은 공동체운동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데 가장 필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조직을 '그냥 만들자'라고 되었는데, 책임지고 이끌어갈 핵심 리더쉽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을 겪었어요. 거의 지금까지도 내려오는거죠. 그것은 어떤 지역의 차원에서 굉장히 손실인거 같아요. 그때 저 혼자 위원회 나가고 했었는데, 그때 꿈이 진짜, 아... 나 같은 사람 딱 세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뜻 맞아가지고 세 명만 있으면, 말씀하신대로 의논하고, 뭐 꾸려 보고, 사고도 치고, 이러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사례 26]

조직 운영에 있어 리더쉽은 조직 운영 활성화의 핵심적인 조건으로 언급된다(이재열, 2006). 참여자의 활동 상황을 파악하고, 활동 내용을 체계화하며, 비전과 계획을 세우는 리더의 부재는 많은 경우 조직의 와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지역공동체운동이 자발적인 동인으로 생성되는 경우도 많은데, 조직 구성의 목적이 고도의 공공성과 높은 사회적 대의를 지녔다 해도, 리더가 없거나 핵심적인 리더 그룹이 없는 경우 지속적인 운영에 많은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여성들이 (조직 구성원들을) 단순히 다 돌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좀 책임지고 이런 리더십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느낌이 되게 드는 거예요 조직 안에서 책임 있게 하는 리더십이 필요해요.

[사례 27]

정말 순수하게 정말 동네 도서관으로만 모이는 엄마들은 너무 뭐랄까, ‘어, 왜 이렇게 힘들어?’ 뭐 하자고 말하다가 말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누가 해봐!’ 어찌다가 흐지부지 되는 사례들도 많아요.

[사례 28]

지역공동체운동 참여에 있어 개인들은 각자 역할을 맡고,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어도, 자신의 역할을 해나가면서 조직의 목적과 이념을 체득하게 되고 공감하게 된다. 이러한 역할의 분담과 역할 내용의 체계화가 리더의 몫인데, 이러한 리더 그룹이 없을 경우, 참여자들이 좋은 활동 방안을 제안하고 의지가 있더라도 활동의 지속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위 사례들은 ‘돌보는 역할’만을 해내려는, 가정 내에서의 어머니와 같은 성역할을 수행하려는 참여자들과는 다른,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리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심층 면접에 참여한 활동가들은 여성중심 지역공동체운동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들이 직접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즉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청소년들의 공간, 그런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들의 모임이나 공간이, 지금 어린이 도서관 있는 것처럼, 공간이 확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사례 29]

[사례 29]는 마을어린이도서관이라는 한 가지 공동체운동의 활동에서 관심 영역이 점차 확대되며 경험하게 되는 고민을 이야기 하고 있다. 어린이에서 청소년이 되면, 새로운 차원의 프로그램과 활동 내용이 필요하며 이들을 위한 공간도 새롭게 확충되어야 한다. 현재 지역사회에는 세대별로 필요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는 주로 노인과 어른들을 위한 것이 많다. 여성 활동가들은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문제들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고, 육아와 교육뿐 아닌 확장된 의미에서의 활

동 영역을 위한 인프라의 확충을 이야기 하고 있었다.

여성들의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해요. 서울시의 여성플라자와 같은 거 말이지요. 여성플라자 또는 성평등플라자, 성평등 커뮤니티 공간이 대전 중심권에 위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성문화회관이 지금 다 외곽에 있잖아요. 범동, 도마동, 가오동 쪽에. 그거 말고, 거기는 또 뭔가 기술을 배워요. 그게 아니고, 다양한 여성들의 공간, 작은 단위들이 모일 수 있는, 문화센터가 아닌 어떤 것이 필요하죠. 문화, 소통, 공동체,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모이는, 좀 이렇게 복합적인 게 있으면 좋겠어요. 대전이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른 건 다양한 여성 그룹들이라고 생각해요. 그 그룹들이 소통하고, 교류하고, 교차하고...그런 공간을 과감히 만들어야 해요.

[사례 30]

[사례 30]은 소규모 공동체 및 이에 참여하는 여성활동가들이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공동의 공간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공동체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책적 지원을 모색할 때, 입안자들은 어느 정도의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대전광역시의 여성들이 타 지역과 달리 높은 교육수준과 다양한 욕구를 지닌, 다양한 사회적 배경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면, 이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스스로 알고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직화 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대전 지역의 여성들은 젊은 인구 비율, 교육 수준, 사회활동 참여에의 욕구 등 다양한 면에서 독특한 사회적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세분화된 소규모 공동체의 결성과 조직 활동의 가능성을 높게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사회운동의 경향은 생활의 문제, 삶의 질 향상의 욕구를 보다 상세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집합활동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소규모 공동체 운동과 참여자들 간 소통을 위한 인프라 확충 지원이 지역 사회의 발전으로 연계될 수 있는 시점이다.

2. 여성중심 지역공동체운동 활성화의 필요조건

지역공동체운동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연계되고, 여성 개인에게는 참여의 보람과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활성화 조건이 요구된다. 첫째, 지역공동체운동 조직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목적성과 정

체성 확립이며, 둘째, 어떠한 일을 하고, 참여자의 역할은 어떻게 나누며, 누가 주도할 것인가의 문제를 정리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리더쉽 형성이다. 셋째, 공동체 운동 활동을 위한 물리적인 공간과 인프라의 구축 또한 필요하며, 네 번째 조건은 다른 공동체운동 조직과의 네트워킹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다.

여성중심 지역공동체운동 조직의 비전문성 및 비체계성은 그 운동의 시작이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모인 주민 (특히 주부들) 결성체인 데 원인이 있다. 이러한 결성체는 자발성과 자율성, 유연성이 가장 큰 장점이고, 이는 새로운 회원들이 이러한 결성체에 참여하게 되는 동기를 부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큰 장점은 가장 큰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 조직의 비전문성과 비체계성 때문에 조직 지속성과 운영의 효율성이 위협 받기도 한다.

지역사회는 한국사회에 내재해 있는 문화적 문법, 혹은 사회적 규칙에서 드러나는 규범의 특성들이 강하게 남아 있는 공간이다.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한 연대, 연고주의적 사회관계의 특성에 기댄 조직의 운영은 유연하고 열려 있는 듯 하지만, 때론 폐쇄적이고 또한 혁신의 가능성도 적은 편이다(이재열, 2006). 따라서, 우선 여성중심 지역공동체운동은 어떻게 새로운 회원이 공동체운동에 참여하는지, 그 사회적 맥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조직 내 참여자들 간 관계의 성격을 규정하는 규칙의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역공동체운동의 목적과 추구하는 가치, 정체성을 고민해 볼 시간과 기회를 구성원이 가질 필요가 있고,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지역공동체운동의 이념과 정체성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새로운 회원에 대한 개방이 가능해 지고, 발전을 위한 혁신도 꾸준히 모색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목적과 정체성의 정립은 참여자 개인에게는 '내가 이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이 노력이 과연 정당하고 보람있는가, 가치 있는 일인가'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사고의 토대를 마련해 준다. 공동체운동 조직의 가치와 정체성의 정립은 조직의 체계화와 뒤따르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우선 작업이 될 것이다.

조직화와 리더쉽의 문제는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사회적 자본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조직 구성원간 역할의 분담과 역할 내용 정리, 갈등 해소와 통합을 증대시킬 수 있는 조직화와 리더쉽의 형성이 필요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과 참여방법, 각종 규칙과 규정을 만들고 꾸준히 개선하는 작업이 따라야 한다. 작은 소규모 공동체 구성원들과 리더그룹은 이러한 조직적 체계화와 리더쉽의 형성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소규모 여성중심 지역공동체운동 조직 간 네트워킹이 필요하며, 네트워킹을 통하여 서로가 훈련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 가능해진다. 리더쉽 교육, 조직 구성원을 위한 전문성 함양 훈련 등이 네트워크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효율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

여성중심 소규모 지역공동체운동 조직들이 횡적인 유대와 실질적 활동을 위한 물리적 공간, 인프라의 확보와 지원이 필요하다. 자생적인 지역공동체운동 조직과 참여자들이 다양한 사회참여가 가능할 수 있고, 지역의 주민들 또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하고 그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지원은 공간을 이용하는 참여자들이 지자체의 정책과 활동 등 공적 이슈에 대한 민감성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며,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대한 참여와 기여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개인과 주변의 생활문제에만 집중된 민원성 사회운동이 아닌,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대의에 충실할 수 있어, 사회적 신뢰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신뢰를 쌓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제 5 장

대전지역 여성중심 지역공동체운동 활성화 및 여성활동가 지원 방안 모색

제5장 대전지역 여성중심 지역공동체운동 활성화 및 여성활동가 지원 방안 모색

지금까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 형태의 공동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활동가들의 경험을 통하여,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 어머니와 아내로만 머무는 것 혹은 공적인 영역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 외에, 다른 내용으로 지역 공동체 사회에 참여하는 여성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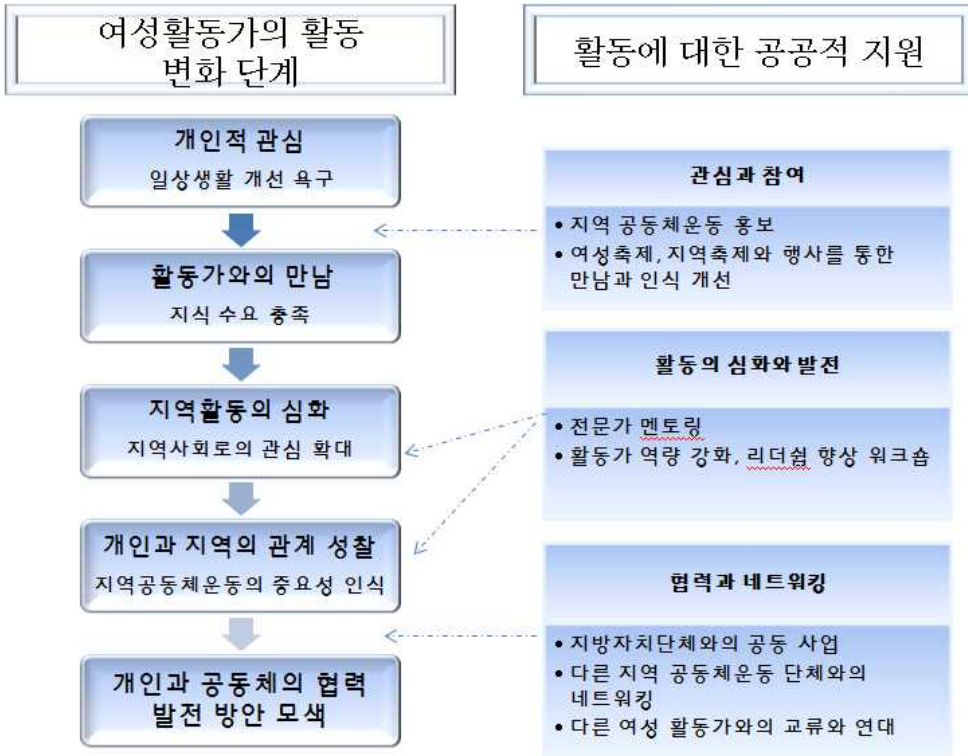
어린이 도서관, 생태 및 환경 운동, 풀뿌리 시민 운동, 여성 운동 등 저마다 독특한 내용을 지닌 지역 공동체 운동 여성 활동가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관계들, 마을과 공동체 사회를 성찰하고 있었고, 이러한 성찰은 지역 공동체의 긍정적 변화, 혹은 발전으로 연계되고 있었다.

여성들이 지역 공동체 운동 참여를 통해서 개인과 가족에 국한한 관심에서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을 확장시키고, 나와 가족만을 위한 일이 아닌, “동네 일”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움직임이 지역 공동체 사회 전체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강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지역의 소규모 공동체 운동에 참여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해는, 한 여성 개인이 사적인 영역을 넘어 지역운동과 공동체라는 공적 영역으로 진입하게 되는 참여의 동인을 검토하는 과정이었다. 또한, 공동체 운동에 참여하는 개인의 경험이 지역사회와는 어떻게 연계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어떠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이 연구는 지역공동체운동에 참여하는 여성 개인들이 활동을 전개하면서 경험하는 과정과 그에 필요한 공공적 지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17] 지역공동체운동 여성활동가의 단계별 활동 변화와 지원 방안



개인적 관심과 필요에서 시작된 공동체운동 참여는 위와 같은 단계를 거치면서 지역사회 공동체와 공공의 이익, 그리고 사회적 대의를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긍정적 변화를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 사회 전체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의 지원이 각 단계별로 필요하다.

‘관심과 참여’의 단계, ‘활동의 심화와 발전’ 단계, 그리고 ‘협력과 네트워킹’의 단계로 나누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이들을 지원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로 자세한 지원 전략이 다음과 같이 모색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할 수 있는 민관협력모형도 제안하고자 한다.

참여자 혹은 지역 공동체 운동 조직의 측면

- 지역 공동체의 이익과 참여의 중요성 인식
- 지역 내 공동체운동이 지역 공동체의 발전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연대성 강조, 목적 의식
- 친목도모나 봉사활동의 단계를 넘어서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난 활동가의 전문성 획득
- 지역 공동체 운동의 대중적 기반 확보, 참여자 계층과 연령의 다양성 확보
- 지역 공동체 운동 단체, 모임, 개인 간 연대 활동의 강화

최근 지역 풀뿌리 운동뿐 아니라, 인권 및 소외 계층 지원 운동, 여성 운동 등 많은 NGO들은 다른 단체 및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연대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파트너십뿐 아닌, 주변 다른 공동체 운동 단체 및 개인들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연대가 보다 더 중요해 지고 있다. 시의성 있는 사업 선정, 여성들의 관심사에 밀접한 활동 내용의 선정과 함께 연대 활동은 많은 지역 여성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개별 단체와 활동가 개인들이 가진 물리적, 사회적 자원의 교류와 연합은 지역 공동체 정체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회원의 활동과 연대를 이끌어내는 데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 공동체 운동의 조직력 강화를 위한 구, 동, 아파트 단지와 같은 하부 지역 단위별 여성 활동가 발굴과 조직화 전략 확립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측면

- 지역 공동체 운동 여성 활동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대전광역시도 지금까지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여성단체를 지원하고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매년 여성발전기금의 배분을 통하여 대전광역시도, 지역 내 여성단체 및 기관에서 행해지는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 한 운동과 성주류화 전략들과 연과된 활동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다루어진 지역 공동체 운동, 혹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 운동 여성 활동가들의 활동은 여성발전기금의 운용 목적에 직접 부합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사회단체보조를 위한 기금을 매년 심의하여 몇몇 지역사회단체에 분배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관례에 많이 의존하게 되는 기존의 사회단체 지원 방식은 새롭게 활동의 내용과 영역을 만들어가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여성발전기금의 운용을 위한 지침에 '여성주의적 가치의 확장'과 '여성의 empowerment와 공동체 발전에의 참여'에 기여하는 광범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 활동 목적에 따른 지원의 특화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의 활동 내용과 목적은 직접적인 여성 관련 이슈에서 확대되어, 생활과 밀접한 것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더 다양해질 전망이다.

직접적인 성평등 이슈, 여성의 인권과 관련된 이슈에 기반 한 여성 활동가들 외, 지역 공동체의 발전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특별한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활동하는 사업 내용과 활동의 목적, 활동 방식에 따라 지원을 위한 분류가 필요하며, 각 활동에 대한 지원을 특화할 필요가 있다.

- 배달강좌제를 활용한 소규모 지역공동체운동 조직의 체계화 지원

대전광역시에는 현재 '배달강좌제'를 통하여 시민의 평생교육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해 오고 있다. 강사가 직접 수요자 그룹을 찾아가 강의를 제공하는 배달강좌제는 소규모 집단에 매우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성인의 경우엔 따로 수강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양질의 다양한 교육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여서 그 호응도가 높다. 이를 여성중심 지역공동체운동 참여자들의 역량강화와 조직의 체계화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운동과 취미생활에 국한된 강좌가 아니라, 공동체운동 참여자들에게 조직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성인지교육 성평등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다. 무형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이러한 강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지역 내 공동체 운동 여성 활동가의 지방자치 참여 지원

-지방자치단체 산하 위원회 참여

지방자치의 발전은 시민들이 행정과 자치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서 시작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특성별로 각종 위원회를 두고 전문가의 행정 및 자치 자문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지방자치 산하 위원회에 지역 공동체운동의 여성 활동가를 참여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지원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참여는 운동 단체가 지역 공동체 운동을 해 오면서 축적한 전문성을 결합하여 정책 결정의 대표성을 높이고, 정책의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의 발굴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또한, 지역 공동체 운동 활동가들도 지방자치 산하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정치적 지위의 향상과 세력화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광역 단위의 위원회 뿐 아니라, 기초 단위의 지방자치단체 산하 위원회,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원회 등,에의 참여는 보다 미시적 차원에서 지역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협력사업의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 공동체 운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적정한 단체 선정 및 지원금 분배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매뉴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대전광역시가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등은 지역 공동체 운동 여성 활동가 및 단체들과의 공동·협력 사업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다.

- 여성 활동가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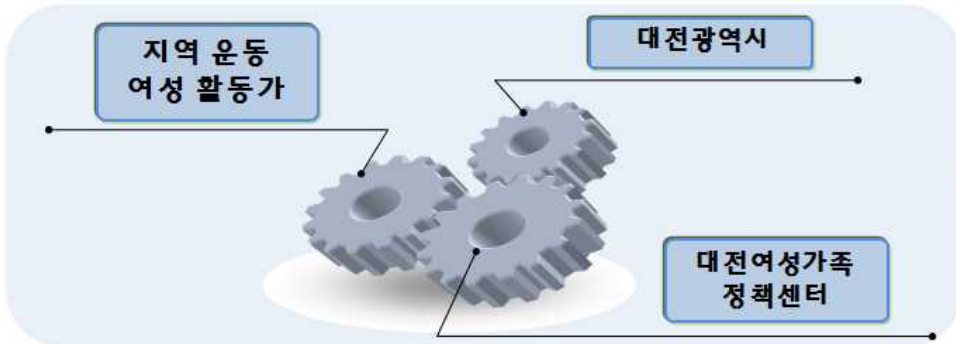
- 개인적 관심과 요구에서 확장되어 지역사회와 공동체와 개인과의 연계, 지역 공동체의 발전을 고민하고 있는 여성 활동가들의 역량을 꾸준히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관 등 지역의 사회서비스 전문 기관들은 정기적으로 종사자를 교육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 공동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활동가들에게도 활동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각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성인지적 관점과 성주류화 전략들, 성차별과 성평등 담론의 흐름 등의 내용뿐 아니라, 공동체 운동 홍보 전략과 회원 간 관계 맺기 및 관계의 확장, 신입회원 확보를 위한 방안 등 다양한 내용들이 구상될 수 있다.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외의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통한 기회의 제공이 요구된다.

[그림 18] 지역 공동체 운동 여성참여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모형



참고문헌

- 곽현근·유현숙. 2005.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의 영향요인과 집합적 효능감: 충북 청원군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6권 제1호: 347-376.
- 김상민. 2005. 주민환경운동과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 배수지건설반대운동'을 사례로. 시민사회와 NGO 제3권 제2호: 155-237.
- 김종미. 2004. 중산층주부의 여성주의 정치학과 사회자본창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이선·이요식·김양희. 1992. 생활공동체운동에 관한 연구: 주부의 생협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제선. 2011. "사회적경제의 중간지원기관 사례연구: 풀뿌리사람들의 사례." 사회적경제연구회 제8회 워크숍 발표문.
- 김현아. 2004. 지역여성운동의 세력화와 제도화: 동북여성민우회 사례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경. 1999. 지역여성운동의 성격연구: 경기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논집.
- 부산여성사회교육원 편. 2007. 함께하는 여성지역문화. 신정.
- 신진욱. 2011. 광주항쟁과 애국적 민주공화국주의의 탄생: 저항적 시민사회의 정체성 구성에 대한 구조해석학적 분석. 한국사회학 45(2): 58~90.
- 언니네트워크. 2011. 한국여성학회 한일공동학술대회 발표문.
- 이주영. 2006. 참여자의 경험세계를 통해 본 지역시민운동: 마포구 '성미산 살리기 운동'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석희·이철우·전형수. 2003. 아파트 주거공간에 기초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9권 제3호: 314-328.
- 임우연. 2007. 지역여성의 과소대표성과 집합정체성 연구: D지역 여성단체의 정치참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재열. 2006. 지역사회공동체와 사회적자본.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 이현희. 2004. 여성주의정치학으로서 생협운동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혜숙. 2008. 지역여성운동의 조직과 성격: 경남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4

권 4호: 175-218.

이혜숙. 2011. 지방자치와 지역여성의 전망: 지역여성정책과 지역여성운동의 동학. 집문당.

전형미. 2002. 지역사회여성의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 울주군지역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울산과학대학 연구논문집 제29권 제2호: 19-40.

차재영. 2008. 지역신문과 지역공동체의 구축: 충북 옥천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8권 제4호: 592-627.

한정자. 2002. 여성단체의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여성운동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황정임 외. 2005. 빈곤여성을 위한 자활지원정책개선방안 연구: 자활공동체(참여여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Freedman, J., 이박혜경 역. 2008. 페미니즘. 이후.

Putnam, R. D., 정승현 역. 2009. 나 홀로 불링: 사회적 커뮤니티의 붕괴와 소생. 페이퍼로드.

월간 언니네(www.uninet.co.kr) 2005년 3월호.

부 록

부록 1. 지역공동체운동 여성활동가 집단면접 질문지

부록 2. 연구 참여 동의서

부록 1. 지역공동체운동 여성활동가 집단면접 질문지

지역 공동체 운동 여성 활동가 집단 면접 질문지

I. 지역 공동체 운동 활동 경험

- (1) 어떠한 지역 공동체 활동 또는 운동에 참여하고 있나?
- (2) 지역 공동체 활동 또는 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3) 얼마나 오랫동안 지역 공동체 공동체 활동 또는 운동에 참여해오고 있나?

II. 지역 공동체와 나

- (1) 지역 공동체와 관련된 활동 또는 운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2) 다른 활동가들이 지역 운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3) 지역 공동체와 관련된 활동들, 지역 운동이 지속되고 발전할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4) 새로운 참여자들, 활동가들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과 노하우가 있다면 무엇인가?

III. 지역 공동체 활동/운동의 발전과 확산

- (1) 지역 공동체 활동/운동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라고 예상하는가?
- (2) 지역 공동체 활동/운동이 어떠한 점에서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고 보는가?
- (3) 지역 공동체 활동/운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가?
- (4) 성공적인 지역 공동체 활동/운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5) 다른 동네, 지역에도 이러한 공동체 활동/운동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IV. 민관협력, 네트워크

- (1) 민간 차원의 지역운동을 지원하는 관의 모습, 이상적인 민관협력,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모형이 있다면 그 모습은 무엇인가?
- (2) 대전광역시가 현재 하고 있는 지역 공동체 활동/운동에 어떠한 지원을 혹은 협력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부록 2.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제목 : 대전여성의 사회참여 - 지역 공동체운동 사례 연구
연구자 : 주 혜 진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이 연구에 참여하는 _____은/는, 본 연구가 대전광역시 내 여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 공동체 운동의 참여자 및 활동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전 지역의 발전과 여성친화성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연구자는 참여자가 지역 공동체 운동 활동 참여에서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에 대하여 질문할 것이고, 면접 시간 동안 오고 간 내용은 후에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녹음될 것이며, 녹음된 내용은 본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녹취록 분석과 활용에 있어 참여자의 이름 및 참여자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삭제되거나 연구용 기호(사례 1, 2 등)로만 게재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전발전연구원 기본과제 보고서로 발간되며, 추후 학술 논문지 등에 연구 논문의 형태로 발간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본인에게 어떠한 비용이나 위험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연구자로부터 설명 들었으며, 이 연구에 관한 궁금한 모든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대답을 들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연구를 위한 면담 도중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으며,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2011년 9월 ____ 일

참여자 : _____ (서명)

기본연구보고서 2011-12

대전여성의 사회참여:
지역공동체운동 사례연구

발행인 이 창 기

발행일 2011년 12월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02-846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본1길 39(월평동160-20)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인쇄: 대전문화사 TEL 042-252-7208 FAX 042-255-7209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